2011 DT BRAND POWER B

DT브랜드파워대상

ICSI KOREA INTERACTIVE COMMUNICATION SATISFACTION INDEX 2010

인터넷 소통대상

e세상을 움직이는
서울사이버대학교

scu e야기 Vol.15

Cyber World 세상을 바꾼 무한 상상력, 스티브 잡스
여기 e 사람 라마크리쉬나 박사 · 문옥륜 석좌교수 · 이재용, 장영수 학우
Mento & Mentee 김완석(멘토) & 손동애 · 정진욱 · 박지혜(멘티)
Special Theme 선배들이 소개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
New Challenge 서울사이버대와 강북구청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렘브란트의 화폭 속으로 떠나는 여행 ①

우리를 위해 아기가 나셨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17세기 최고의 화가라고 칭송받은 렘브란트는 2,000여 점이 넘는 유화와 에칭, 소묘 작품을 남겼다고 하는데 그 중 절반에 가까운 수의 성경 그림을 남기었다. 그러한 그림 가운데 예술적 재능과 진리에 대한 깊은 고민과 고백을 담고 있으니, 다가오는 2011년의 연말에 우리의 마음을 심연으로 인도해 주리라 생각한다.

글 | **박한결 목사**

'미술'은 화려한 '음악'과 달리 능동적이고 차분하게 감동이 전해져 온다. '음악'은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그 감동이 즉각적으로 전해지지만, 미술작품을 능동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차분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노라면 무수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더구나 '미술'은 그 당시의 전통적인 문화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으니 보배와 같은 문화이다. 흔히들 렘브란트를 '빛의 화가'라고 부른다. 그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확연히 대비되는 어둠과 함께 다가오는 환한 빛의 환희를 쉽게 느낄 수 있을 정도라 그러한 별명이 붙은 것이리라. 그의 빛과 어둠 속으로 함께 발걸음을 옮겨 보자.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와 순종

1646년에 완성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목자들〉이라는 오른쪽 그림은 예수님을 찾아온 목자들의 벅찬 감동과 감사의 모습을 담고 있다.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구유 곁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둘러있고, 무릎을 꿇고, 지팡이를 들고, 작은 등불을 들고 기도하는 목자 등이 하나 둘 눈에 들어온다. 방금 전까지 양을 치느라 고된 일과를 마무리 짓고 잠자리에 들려하는 순간 홀연히 하늘의 천사를 목격하고 깜짝 놀라 허둥지둥 댔던 그들의 당황한 기색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차분히 기도하는 목자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격이 깃들어 있다. 겉치레의 예배가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 전해오는 감동이 깃든 예배의 순간이다. 좀 더 시야를 넓히면 화면 오른편 구석에서 강아지와 함께하고 있는 어린 아이,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 하는 여인들의 모습, 왼쪽의 여물 먹는 말 등이 한층 생동감을 더한다.

목자들의 외침이 들리는가? 헨델의 '메시아' 12번 "우리를 위해 아기가 나셨다"라는 합창 소리가 들리는가? "기묘자라 모사라(Wonderful Counselor)"는 외침처럼 웅장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감동적인 떨림이 귓가에 전해오는가? 그들의 심장은 마구 두근거리고 있으며 빠르게 맥박이 고동쳤을 것이다. 헨델의 '메시아'는 수많은 명곡을 포함하고 있지만 대중들에게 가장 알려진 곡은 아마도 44번 '할렐루야'라는 곡일 것이다. 강렬한 트럼펫 소리와 함께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목자들〉, 1646년. 이 그림은 예수님을 찾아온 목자들의 벅찬 감동과 감사의 모습을 담고 있다.

'King of Kings'이 외쳐지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지 않을 수 없는 곡이다. 하지만 54번의 '아멘'은 그러한 강렬함과는 조금 다르지만 더욱 짙은 감동을 전해온다. 5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4파트의 가사는 단 하나 '아멘'일 뿐이다.

모든 기득권과 안정 내려놓고 순종하는 고귀함

렘브란트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린 것은 위 작품 외에도 여러 작품들이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탄생 작품 가운데 거의 대부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마리아'이다. 2천 년 전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녀는 요셉과 약혼을 하고 순탄한 결혼생활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곧 아이를 낳을 것"이란 말을 듣게 되고 순간 혼란에 빠진다. 하지만 당혹하고 두려웠던 것은 잠시, 곧 순종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눅 1:38) 하는 고백이었다. 다시 말하면 '아멘'이었다.

〈63세의 자화상〉, 1669년.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천사의 말을 듣고 비웃었으며, 성직자였던 사가랴는 의심하였으나 마리아는 '아멘'으로 순종했다. 이스라엘의 당시 풍습으로는 그녀에게 위험일 수 있었다.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이었고 평생 독신이나 걸인으로 살 위험이었지만 감수했다. "내가 믿사오니 주 뜻대로 행하소서" 이것이 마리아의 응답이었다. 이러한 순종으로 인해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는 영광을 누렸고 그의 탄생에서 죽음까지 바로 곁에서 지켜본 유일한 인간이 되었다. 헨델 '메시아'의 '아멘'이 감동적인 이유는 그러한 모든 기득권과 안정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고귀함이 전해져오기 때문일 것이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다. 2011년이 저물고 있다. 늘 그러했듯이 성탄과 연말의 시간들은 온통 난리법석이다. 그 본질적인 의미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세상의 탐욕과 무질서함이 마구 드러나도 용서가 될 것처럼 야단법석을 떤다. 하지만 우리들은, 렘브란트가 위 그림을 통해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와 순종"을 펼치듯, 마구간에 모인 뭇 사람들의 한결같은 설렘, 호기심과 두려움을 우리가 바라보며 '만유의 주재' 앞에 조용히 고개 숙이는 겸손과 '아멘'의 마음을 품어보는 것은 어떨까? 헤롯에게 성탄은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순간처럼 느껴졌지만 목자들과 동방박사에게는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된 것처럼 말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박한결 목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및 교육대학원(M.Edu.)
(현) 청량교회 교육목사
(현) 신일중고등학교 교목

scue야기 Vol.15

CONTENTS

02 Bible Story | 렘브란트의 화폭 속으로 떠나는 여행 ①
04 Photo & Story | 대학 캠퍼스 생활의 꽃 … 제9회 한마음 대축제
06 Cyber World | 세상을 바꾼 무한 상상력, 스티브 잡스
08 여기 e 사람 ① | 라마크라쉬나 박사
10 여기 e 사람 ② | 보건행정학과 문옥륜 석좌교수
12 여기 e 사람 ③ | 이재용(국제무역물류학과 3년)
13 여기 e 사람 ④ | 장명주(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4년)
14 사제지정 | 부동산학과 김용희 교수 & 정경숙(졸업생)
16 Mento & Menti | 금융보험학과
18 Click! SCU | 서사인 등반대회
19 Edu Info | 글로벌 CEO 특강
20 Special Theme | 선배들이 소개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

24 New Challenge SCU & 강북구청
26 SCU Life | 문화 · 공연 · 교수추천도서 · 사이버예절
독자퀴즈 · SCU 학사규정
30 Plus WE | SCU 온라인 학습수기
31 SCU Network | SCU Learning WAVE 특허 취득 외
34 SCU Network | 교수동정
35 2012 입학모집요강

• 발 행 처 서울사이버대학교
142-700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 49길 60
(미아동 193-15번지)
• 발 행 인 이재웅 총장
• 편집주간 이향아 교수
• 편집위원 고윤승, 김영민, 김현아, 박병석, 심선경, 임세희 교수
• 발 행 일 2011년 12월 15일
• 기획편집 서울사이버대학교 출판부 (02)944-5216
(주)디플랜네트워크 (02)518-3430

대학 캠퍼스 생활의 꽃 … 제9회 한마음 대축제

‘우리끼리’ 가 아닌 ‘우리 모두’ 가 즐기는 축제의 한마당!

늦더위가 물러간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바야흐로 대학 생활의 꽃, 가을 축제기간이 돌아왔다. 지난 10월 8일, 서사대 신일캠퍼스도 올해 9회째를 맞는 ‘한마음 대축제’로 모처럼 북적였다. 여느 오프라인 대학들과 달리 참여한 재학생들의 연배가 훌쩍 높지만 그 열정만큼은 어린 학생들 못지않다. 얼굴 볼 기회가 흔치 않은 학우들이지만 같은 학교, 같은 학과라는 인연으로 똘똘 뭉쳐 낯설기 보다는 반갑고, 함께하는 시간만으로도 즐겁다. 헤어짐이 아쉬운 만큼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축제의 열기는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활력과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글 | 편집부

‘열정 서사인, 점프 투게더(Jump Together)!’ 슬로건 만큼이나 뜨거웠던 ‘한마음 대축제’가 다시금 오프라인에서 서사인을 묶어주는 뜻 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명랑운동회, 요리경연대회 ‘쿠킹 올림픽’, 장기자랑 ‘슈퍼스타 SCU’ 등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과 새벽 첫차를 타고 지방에서 올라올 정도로 열정적인 학우들의 높은 참여율로 성황을 이룬 것. 허묘연 학생처장은 “한마음 대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오프라인 만남은 재학생들의 유대감도 높아질뿐 아니라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인간복지, 심리상담, 사회과학, 경상, IT디자인의 총 5개 학부 14개 학과가 참여한 이번 축제는 족구, 피구, 승부차기 게임, 단체줄다리기, 풍선게임 등의 학부대항 경기와 이어달리기, 단체줄넘기, OX퀴즈, 요리경연대회 등의 학과대항 경기로 나뉘어 진행됐다. 종합우승을 차지한 컴퓨터정보통신학과의 김확용 회장(4학년)은 “개인적으로 학과회장직을 맡으면서 제일 이루고 싶은 1순위가 체육대회 우승이었다. 이번 우승을 통해 컴통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다.” 라며 우승소감을 밝혔다.

가을의 낭만이 가득한 캠퍼스에서 펼쳐진 서사대 ‘한마음 대축제’는 여타 다른 대학축제와 다른 특별한 점이 있다. 세 살 아이부터 나이 지긋한 노인까지 참여 연령대가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날 캠퍼스에 모인 2,000여 명의 사람들은 언뜻 봐서 누가 학생이고 누가 가족인지 가늠할 수 없다. 학교와 직장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서사인들에게 축제는 가족과 함께 할 좋은 기회다. 가족단위 참가자가 유난히 많은 것은 바로 그런 이유다. 총학생회 측에서는 아예 ‘가족놀이마당’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페이스페인팅, 캐리커처, 포토존 이벤트 등을 마련했다. ‘우리끼리’가 아닌 ‘우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마련한 것.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과 가족이 함께한 ‘한마음 대축제’는 이름처럼 서사대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는 어울림의 장이었다.

함께 뛰는 열정, 경쟁과 화합의 한마당!

열정 서사인, 점프 투게더(Jump Together)!

1 ‘열정 서사인, 점프 투게더(Jump Together)’ 라는 슬로건 아래 서사대를 사랑하는 2,000여 가족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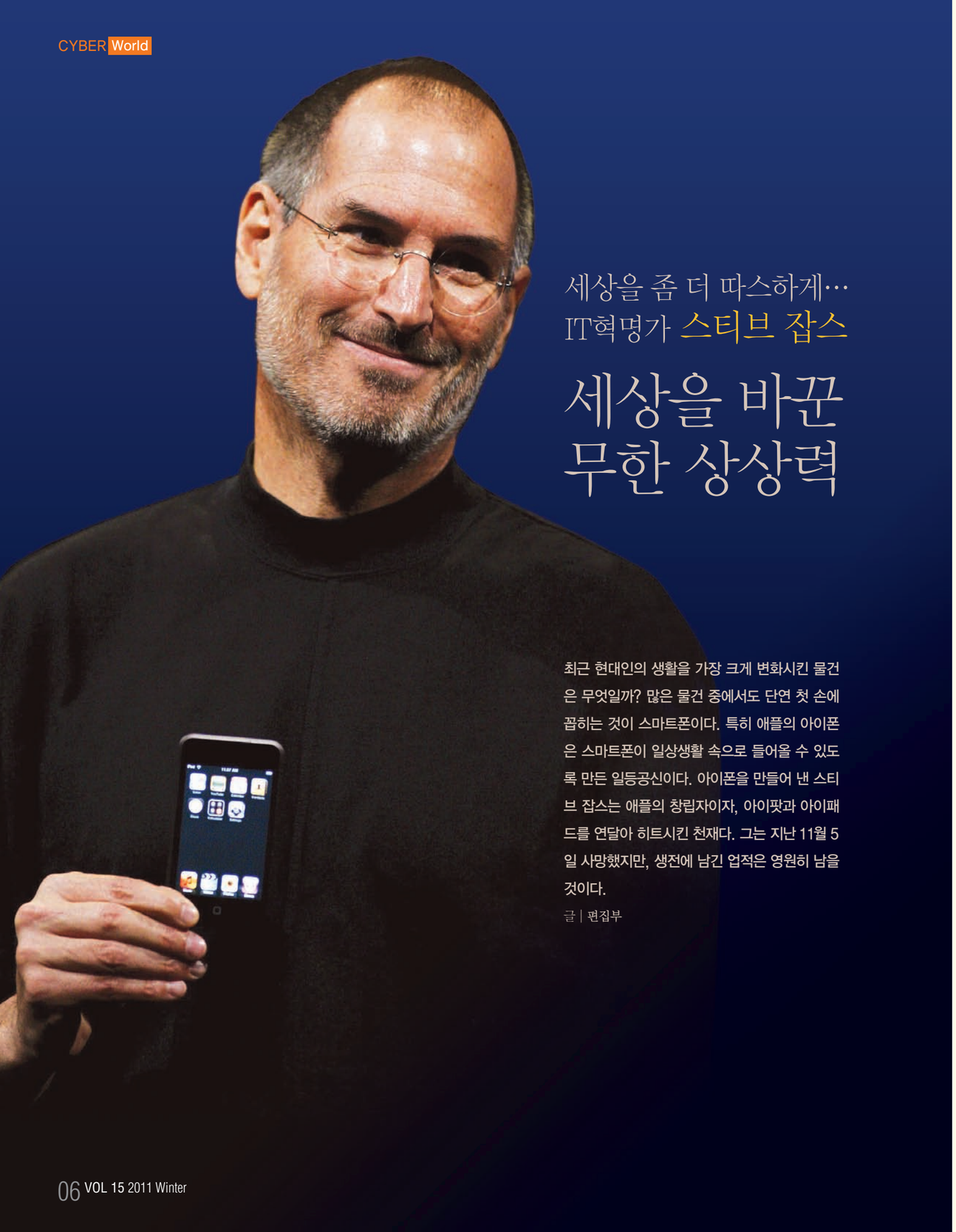
2 학우들과 함께 응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총장님과 총학생회장님.

3 각 학과별로 요리솜씨를 뽐내는 ‘쿠킹 올림픽’에 참가한 상담심리학과 학생들이 심사위원에게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익살스러운 애교작전을 펼쳤다.

4 단체 줄다리기에서 우승한 팀이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5 재학생 가족들을 위한 페이스 페인팅 행사에 참여한 귀여운 아이의 모습.

6 ‘한마음 대축제’는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서 건강한 경쟁과 화합의 정신을 나누는 시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세상을 좀 더 따스하게…
IT혁명가 스티브 잡스

세상을 바꾼 무한 상상력

최근 현대인의 생활을 가장 크게 변화시킨 물건은 무엇일까? 많은 물건 중에서도 단연 첫 손에 꼽히는 것이 스마트폰이다. 특히 애플의 아이폰은 스마트폰이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일등공신이다. 아이폰을 만들어 낸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창립자이자, 아이팟과 아이패드를 연달아 히트시킨 천재다. 그는 지난 11월 5일 사망했지만, 생전에 남긴 업적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글 | 편집부

2007년 6월 출시된 아이폰은 지금까지의 누적 판매량이 1억 3천만대를 넘어가는 베스트셀러다. 애플은 이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IT기업 중 주가총액 1위를 차지했다. 아이폰이 주목받는 이유는 뛰어난 제품일 뿐만 아니라, 휴대폰 업계의 오래된 룰을 깨트리면서 동시에 IT산업을 크게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아이폰은 통신사의 요구에 따라 제품을 만드는 관행을 뒤집고 기능의 가감 없이 통신사가 받아들이도록 했다. 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의 수익도 이전에는 통신사가 거의 차지했지만 애플은 앱스토어를 만들어 애플과 개발자가 3:7의 비율로 수익을 나누게 했다. 앱스토어는 개발자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었으며, 통신시장은 음성통신 중심에서 데이터통신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하지만 이런 업적의 뒷면에는 힘들었던 애플의 역사가 숨어있다. 애플은 최초의 개인용 PC를 선보이며 혜성 같이 등장했다. 하지만 잡스의 고집과 독재적 운영으로 인해 크게 흔들리게 된다. 잡스가 애플을 나간 이후에는 경영진의 잘못된 선택들이 계속되어 파산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잡스는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애플로 복귀했고, 애플을 떠났던 시절 픽사를 운영하면서 깨달았던 콘텐츠의 힘을 활용해 애플을 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라는 명작들을 만들어내며 애플을 다시금 최고의 위치로 올려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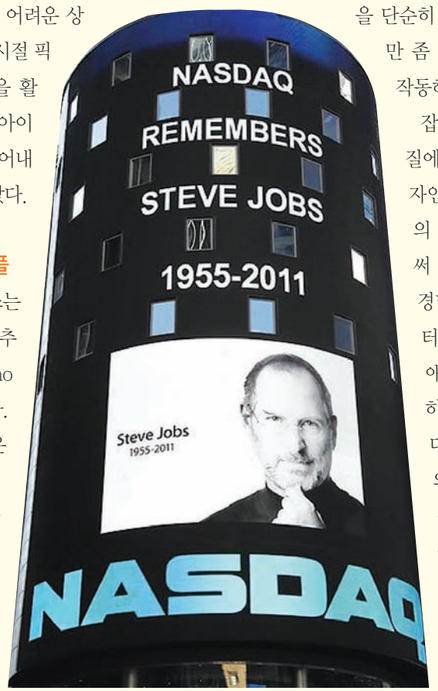
인문학과 기술의 교차로에 서있는 애플

'아이패드'를 발표하던 자리에서 잡스는 특이한 이름이 적힌 표지판을 스크린에 비추었다. 표지판에 적힌 길의 이름은 'Technology(기술)'와 'Liberal Art(인문학)'였다. 스티브 잡스는 이 표지판 아래에서 "애플은 변함없이 인문학과 기술의 교차로에 서 있었다."고 말했다. 애플의 성공이 단지 기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인문학은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영역을 말한다. 자연과학은 객관적인 자연현상을 다루지만 인문학은 인간의 가치탐구와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잡스가 현대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인문학에 있다고 말한 것은 기술이 인간을 편리하게 해야 한다는 목적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모든 삶의 근간에는 인간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STEVE JOBS

스티브 잡스는 기술 자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애플이 소비자에게 무엇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했다. 애플의 시초가 되었던 애플 컴퓨터는 '개인이 PC를 이용해서 즐거움을 얻고, 생활에 도움을 주자'는 생각에서 만들었고, '아이폰은 언제 어디서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에서 탄생되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은 변함없이 인문학과 기술의 교차로에 서있었다."고 말했다. 애플의 성공이 단지 기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잡스가 현대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인문학에 있다고 말한 것은 기술이 인간을 편리하게 해야 한다는 목적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모든 삶의 근간에는 인간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스티브 잡스는 기술 자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애플이 소비자에게 무엇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했다. 애플의 시초가 되었던 애플 컴퓨터는 '개인이 PC를 이용해서 즐거움을 얻고, 생활에 도움을 주자'는 생각에서 만들어졌고, '아이폰은 언제 어디서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에서 탄생되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경험'

"디자인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디자인을 단순히 제품의 외형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제품이 어떻게 작동하느냐를 의미하는 것이죠."

잡스는 1996년 한 인터뷰에서 디자인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잡스가 말하는 디자인은 겉모양뿐만 아니라 물건을 사용할 때의 느낌과 감각, 그리고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경험들을 모두 아우른다. 사용자의 경험을 중시하는 애플의 사상은 포장에서부터 드러난다. 사용자들은 패키지에서부터 애플의 매력에 빠져든다. 사용방법도 철저하게 사용자 입장에서 디자인하고 개발했다. 애플의 제품들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와 같은 첨단기기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큰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심플하다. 심지어 어린 아이도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스티브 잡스가 지금까지 보여준 혁신은 '기술을 통해 소비자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바탕으로 탄생되었다. 그는 애플을 설립할 때 이렇게 말했다. 바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즐거운 인생을 만들어 주는 도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생각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켰다.

UN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소장, **킬라파르티 라마크리쉬나 박사**

동북아 현안 다루는 핵심 멤버 글로벌 수준 해결 위해 다각적 노력

라마크리쉬나 박사는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위치한 UN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의 소장이다. UNESCAP는 UN에 속하는 기구로서 아시아 · 태평양 회원국들의 사회 · 경제적 현안을 다루고 있는 조직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킬라파르티 라마크리쉬나 박사를 만나 UN의 역할과 국제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들어보았다.

글 | 편집부

라마크리쉬나 박사는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추진하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 대한 4개국 e-Learning센터에 대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라마크리쉬나 박사가 참여하고 있는 UNESCAP은 UN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5개 지역경제위원회 중 하나로, 아시아 · 태평양 회원국들의 사회 · 경제적 현안을 다루는 조직이다. 1947년에 설립이 되어 5개 대륙 위원회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으며 53개 정회원국과 9개의 준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다.

UN 산하기관 UN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의 소장으로 활동 중인 라마크리쉬나 박사. 그는 2010년 5월,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개소한 UN 아시아 · 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 동북아지역사무소 소장으로 부임했다.

세계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다

"UNESCAP은 전 세계의 60%가 넘는 아시아 인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적 배경과 함께 회원국들을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적기에 다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주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다소 낯설다. 하지만 UN의 산하기관이라고 하면 말이 달라진다. 2010년 5월, UNESCAP은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개소한 UN 아시아 ·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지역사무소 소장으로 부임했다.

세계 각국의 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인 UN은 일반 국가의 정부와 달리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권한이 제한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UN의 존재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UN은 군사력 같은 하드파워보다는 소프트파워를 행사하도록 요구받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직접 군사력을 파병하기보다는 많은 회원국들이 가능한 많은 병력을 파병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라마크리쉬나 박사는 UN의 역할이 "보다 효율적인 기구로 되도록 많은 회원국들이 따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소프트파워를 행사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이를 잘 수행해 왔기에, 앞으로도 UN의 역할은 중요하다는 사실도 재차 강조한다. UN의 이런 사상 하에서 UN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는 회원 국가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UN은 평화, 안보,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런 많은 업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간 UN은 1972년 UN환경회의를 시작으로 리오회의, 지속가능 국제회의와 정상회의 등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논의를 해왔다. 하지만 환경문제는 너무 다양하고 각처에 분산되어 있어 각 국가가 모든 문제를 간파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다. 이 같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은 UN이다.

실제로 UN은 '개별 회원국들의 목소리와 구별되도록 글로벌 수준의 문제를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에 대한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는 1년에 약 1,000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한 상태였다. 라마크리쉬나 박사는 "해당 문제는 너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유엔의 연간 예산은 50억 달러 정도였다"며 "'UN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에 대한 고민을 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UN의 해결 방안은 협력이었다. 라마크리쉬나 박사는 "UN은 환경문제를 다루는 선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했다"고 말한다. 많은 시민단체의 참여는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대학, 연구소, 민간영역이 함께 모여 수평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제 현안에 대해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그가 바라본 e-Learning의 미래와 가능성

교육의 역할도 마찬가지다. 특정 장소에 얽매여 학습을 해야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라마크라쉬나 박사가 e-Learning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도 비슷하다. 특히 그는 "하버드나 MIT, 캠브리지대학이나 옥스퍼드대학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시대"라며 e-Learning의 발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업무로 인해서 대학캠퍼스에 직접 출석하여 공부할 수 없다면, e-Learning은 아주 중요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Learning이 발달하면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교육시스템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라마크라쉬나 박사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학습도구가 주어져 더 나은 조건으로 구직이나 전직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이 아닐까요?"라고 반문하며 e-Learning이 갖고 있는 혜택과 구조, 그리고 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아울러 라마크리쉬나 박사는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추진하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 대한 4개국 e-Learning센터에 대해서도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4개국을 지원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아마도 4개국은 이를 감사하게 생각할거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 제가 속해있는 곳에서 e-Learning을 UN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보건행정학과 **문옥륜 석좌교수**

지식 초월한 인간사랑으로 건강한 대한민국 완성하는 남다른 열정

보건 · 의료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친절 마인드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문옥륜 석좌교수. 그 자신이 일평생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에 동참해온 만큼, 이 분야에 도전하는 후학들을 지켜보는 마음도 남다르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영혼이 깃든다' 는 말이 있다. 실제로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보건행정학과 문옥륜 석좌교수. 현재 다니엘병원 및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병원장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여전히 의료현장에 머무르며 국내 보건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 | 편집부

문옥륜 석좌교수는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 마련에 힘을 보태왔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제도가 미비해 개인 의료비 지출 부담이 상당히 크다. 그런 점에서 문옥륜 교수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아직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일찍이 도입하고 정착시키는 데에 자신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온 국민의 희망이 된 국민건강보험 제도

"1977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현장, 행정 등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해야 합니다. 그즈음 제가 유학을 마치고 들어오게 되어 운 좋게 사회제도를 구축하는 일에 자문위원으로서 동참하게 되었지요."

지금이야 누구든 동일하게 혜택을 누리고 있기에, 국민건강보험의 소중함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정착되기 이전에는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은 병원 문턱도 넘지 못할 만큼 많은 비용이 요구됐다. 그러나 지금은 건강보험카드만 있으면 언제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입원도 가능하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우리나라가 크게 성장했지만, 보건의료 부분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OECD국가 가운데 1960년부터 2000년까지 평균 수명이 가장 길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무려 23.1세가 늘어났어요.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국민들이 많이 건강해졌다는 증거이지요. 국민건강보험 제도 도입은 제 일생 중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문옥륜 교수는 지난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도 참여했다. 과거에는 노인을 부양하는 책임이 개인에게 지워져 있었지만, 이제는 사회제도가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만든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내에 요양병원이 무려 45배나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병원급 의료기관이 약 2천5백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요양병원이 약 870개입니다. 요양원까지 합하면 관련 의료시장은 더욱 커집니다. 덕분에 이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 숫자도 크게 늘어났지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더욱 커진 의료시장

다니엘병원과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병원장인 그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시장의 장단점을 체감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다. 중소병원이 감당해야 할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리면서 지역별 의료 환경이 급격히 불균형해지고 있는 점,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일부 기관이 미진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때문에 그는 보건 관련 전공자들이 할 일이 많다고 여긴다.

"생명에 대한 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필요해졌습니다. 특히 이제는 급성질환보다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는 보건교육사들의 활동 영역도 넓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보건요원이라면 누구든 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만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자신만의 기술을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 자신이 일평생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에 동참해온 만큼, 이 분야에 도전하는 후학들을 지켜보는 마음도 남다르다. 그는 실질적인 전문성은 기본이요, 윤리의식까지 굳건하게 갖추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처럼 지식을 초월한 인간 사랑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관심을 끊임없이 기울이고 있는 문옥륜 교수. 일평생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사하라사막 마라톤' 완주기

이재용 학우(국제무역물류학과 3학년)

최고 카타르시스와 충만감 만끽

과감한 도전은 계속된다

스페인 작가 알렉스 로비라 셀마(Alex Rovira Celma)는 강조했다. '모험을 하지 않으면 당신의 삶은 단 한 뼘도 나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모험이야말로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으리란 뜻이다. 얼마 전, '사하라사막 마라톤 대회'를 무사히 치르고 귀국한 국제무역물류학과 이재용(33) 학우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시련과 고난을 즐길 줄 알았고, 주어진 삶을 어떻게 조탁해야 할는지 제대로 배워가는 중이었다.

글 | 편집부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기로 유명한 '사하라사막 마라톤 대회'에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참여해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국제무역물류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재용 학우도 그중 한 사람. 상상만으로는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일주일간의 여정에 대해 물어보자, 그가 벅차오르는 듯 깊게 들숨을 머금는다.

"10월 2일부터 9일까지, 총 여섯 코스를 달렸어요. 거리로 계산하면 약 250km 정도 되죠. 특히 다섯 번째 구간은 이틀에 걸쳐 86.4km를 소화해야 했는데, 너무 힘든 나머지 죽음의 고지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답니다(웃음)."

낮 기온 50℃를 넘나드는 불모의 땅 위에서 이재용 학우는 인내의 극한을 경험했다. 사흘째 되는 날엔 최소한의 생존 장비만 남겨둔 채 모든 것을 버려야 했다. 출발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물품들이 사실은 전부 자신의 욕심이었고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지니지 않아도 될 것을 가지려 애쓰는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얼마나 처절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뼛속 깊이 겪었죠. 마지막 순간까지 레이스는 제게 어디에서도 얻지 못하는 귀중한 진리를 건네 주었어요."

참가비만 자그마치 9백만 원, 비록 체중이 8kg이나 줄고 온몸 곳곳에 크고 작은 상흔이 남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출전을 후회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생애 최고의 카타르시스와 충만감을 만끽한 까닭이다.

2011 사하라사막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위상을 떨치고 돌아온 국제무역물류학과 이재용 학우. 과감한 도전이야말로 장밋빛 미래에 대한 우량 담보라고 단언하는 그는 중소 무역회사 대표이자 국제운송업체 이사로도 활약 중이다.

"다들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으세요. 대체 그 큰 돈을 들여 고생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럼 저는 대답하죠. 해 보면 안다고! 아마 비용이 더 높게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저는 주저 않고 신청했을 거예요. 투자 그 이상의 가치가 있거든요."

과감한 도전이야말로 장밋빛 미래에 대한 우량 담보라고 단언하는 이재용 학우. 실제 그는 중소 무역회사 대표이자 국제운송업체 이사로도 활약 중이다. 올 초 본교에 편입해 학업까지 병행하고 있으니, 그 열정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수업을 통해 진정한 글로벌 경영이 무엇인지, 리더는 어떠한 신념을 갖고 움직여야 하는지, 새삼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많아 힘들지 않느냐고요? 전혀요! 오히려 매일이 설레고 기다려집니다. 그게 모험의 묘미 아니겠어요?"

가까운 시일 내에 '사하라사막 마라톤 대회'에 재도전하리라 다짐하는 이재용 학우의 얼굴에 벌써부터 기대감이 묻어난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일지라도 두려워 않고 먼저 발을 내딛는 사람, 이재용 학우는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한다.

'건축문화재 복원가'

장명주 학우(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4학년)

전통과 현대, 조화롭게 계승시키는

슬기로운 문화재지킴이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어야 하는 일들이 있다. 문화재 보존이 대표적이다. 문화재 외에 민족의 근원과 정신을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란 존재하지 않는 까닭이다. 문화재 지킴이로 살아온 지 어느덧 20여 년, 장명주(42) 학우는 확신한다. 이 모든 것이 숙명이며,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문화재를 물려주겠노라고 더불어 다짐한다.

글 | 편집부

긴 머리를 야무지게 동여맨 채 학교 운동장을 발 빠르게 가로지르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의 명예를 걸고 승부차기 선수로 출전하게 되었다는 장명주 학우다. "오늘 실력 발휘 좀 해야 할 텐데……, 살짝 걱정되네요(웃음)." 매년 이맘때쯤이면 열리는 〈한마음 대축제〉이지만, 장명주 학우는 유독 열심이다. 그럴 만한 것이, 서울사이버대학교의 학생 신분으로는 마지막 행사 참여이기 때문이다.

"드디어! 8년 만에 졸업합니다. 10년 정도 예상했는데, 그보다 빨리 학위를 따게 되어 괜스레 섭섭하네요. 하하하."

지난 2004년, 특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에 입학한 장명주 학우는 문화재 보수 전문가이다. 주요 사찰 및 각종 불상 조각품 등을 전문으로 복원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이다. 이력 또한 화려하다. 1998년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된 광덕사천불전(廣德寺千佛殿) 복원 작업에 참여하여 건축물 복원과 천불상조각, 단청까지 끝내는데 4년이 걸렸단다. 1999년부터 중요무형문화재 31호 김기찬 선생에게 조각과 불로지져서 전통문양을 새기는 기법을 전수받는 중이기도 하다. 장승조각에도 탁월한 솜씨를 보여 전국대회에 참가할 때마다 뛰어난 실력으로 입상을 하곤 한다.

"할아버지에 이어 아버지까지 전부 문화재 보수 전문가이셨어요. 덕분에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문화재 복원의 길을 가게 되었죠. 때때로 외롭고 고되기도 하지만, 보람에 비할 바가 아니죠.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를 선택하게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요컨대, 문화재 자료가 비교적 미비한 국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다양한 정보 및 콘텐츠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대한민국 문화재의 가치를 만방에 체계적으로 인식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멀티미디어디자인에 관한 지식과 이해가 절실했다.

중국 내에서 한국식 바람이 불어 문화재나 건축물에도 새롭게 한국식 한옥으로 다시 재건, 복원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올해 5월에도 중국심양에서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조선족이 문화재급의 큰 전통사찰을 순 한국식 한옥으로 복원하는데 한국팀을 이끌고 가서 한수 보여주고 왔다.

"긴급 보수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수업 듣기가 참 어려웠어요.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는 산사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시험 기간이면 정말 난감했지요. 지역 내 동사무소를 찾아 내려와 양해를 구하고 시험을 본 적도 있다니까요."

여건이 안 되어 여러 번 휴학을 거듭하긴 했으나, 한 순간도 학업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고 한다. 문화재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단단히 무장한 그였기 때문이다.

"학교 측의 배려가 없었더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교수님들께 감사하죠. 전통건축물이나 퓨전한옥, 생태주택 등의 건축물에서부터 전통공예와 전통문양에 관해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010-8328-3377)"라며 다사다난했던 지난 날을 떠올리며 조금 멋쩍은 듯 미소짓는다. 장명주 학우의 포부 만큼이나 꾸준한 행보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더 큰 꿈을 꾸는
'꿈숙 씨'
정경숙 양에게

자신의 꿈 성취하고, 멋진 세계 재발견하는 삶 되길

글 | 김용희 교수(부동산학과)

"교수님 어디세요?" 수화기 너머로 맑고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온다. 정경숙 씨다. 올초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 입학한 경숙 씨가 체육대회 날 모교를 찾아왔다. 지금은 대학원에서 학년대표까지 맡아 무척이나 바쁘단다. 등산을 마치고 합류한 남편이 곧 도착했다. 더욱 활기있어 보이는 그녀의 모습이 오늘은 가을하늘만큼이나 푸르고 행복해 보인다.

올 초 신입생 환영회가 있었다. 경숙 씨에게 '선배와의 대화'를 부탁했다. 등산하다 골절상을 당하여 목발을 짚고 왔다. 늘 그렇듯 오늘도 남편과 아름다운 동행이다. 신입생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온라인대학에서 오프라인 모임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나눔과 함께 함이 무얼 가져다주는지. 어떻게 대학생활에 적응해 가야 하는지. 수강하고, 시험응시하고 학우들과의 교제를 나누고…. 이 친구는 복수전공으로 사회복지학사 학위까지 취득하고, 각종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리고 대학원에 입학하고… 자기인생에서 이처럼 의미있는 시간은 없었단다. 꿈을 꾸게 한 곳,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한 곳, 학우들과 교수들과 정을 나눈 곳. 이 친구 갑자기 목이 매여 말을 잊지 못한다. 듣고 있는 선생들도 갑자기 목이 먹먹해 온다.

사실 이 친구, 본인의 노력과 성취이지 대학이 해 준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다만 공부하고 활동하고 성장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일 뿐, 이 친구 재학시절 학교와 학과에 쏟은 정성과 열정은 너무 크다. 공식적으로는 중서부지역회장을 맡아서 왕성한 활동을 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일부일 뿐이다. 학과의 큰언니 역할로 선후배간의 연계와 학우들 간의 화해와 조화… 세세한 곳까지 정성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학과에서는 이 친구에게 준 것보다 받은 것이 훨씬 많다.

대학은 꿈을 성취하고 또 다른 꿈을 꾸는 곳이어야 한다. 부동산학과 졸업생 중 현재 약 120여명이 석사과정에 진학하였고, 5명이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지난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은 이번 학기 본교 강의에 출강하고 있다.

선생을 하면서 기쁘고 행복한 일들은 많다. 그중 하나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는 것이다. 학생 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들이 성취욕도 높고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계속 발전하는 것 같다. 매년 신입생 환영회에서 2가지를 강조한다. 이제 갓 입학하였지만 대학원을 향한 새로운 꿈을 꿀 것과, 단순한 학업적 성취는 대학교육의 일부일 뿐이므로, 온라인 대학이지만 다양한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하여 서로간의 나눔과 조화를 배워가기를 권장한다.

가을 하늘이 더욱 높아졌다. 경숙 씨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고 싶다. 이제는 더 큰 꿈을 꾸는 '꿈숙이'가 되라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또 입학하고, 젊은이의 학업만큼이나 중년의 학업도 의미있고 뜻깊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 내년 체육대회에는 더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겠지. 재학생의 운동회가 동문들의 운동회로, 재학생과 동문들이 함께 어우러져 꿈과 함께 달리고 뒹구는 운동회가 되겠지, 경숙 씨처럼 또 꿈을 꾸어본다.

따스한 희망 베풀며 삶의 지혜 주는 영원한 멘토

'아버님'의 푸근함
가득 묻어나는
김용희 교수님께

글 | 정경숙(부동산학과, 10년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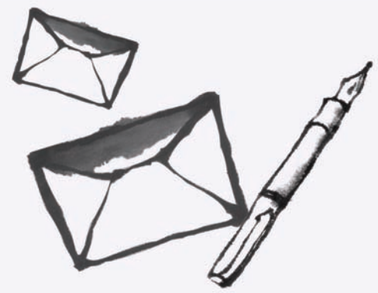
교수님은 저의 영원한 멘토이십니다. SCU에 대한 호기심으로 부동산학과 사이트를 처음 방문했을 때, 만난 학구적인 김용희 교수님의 모습에 이끌려 서울사이버대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웅 총장님과 김용희 교수님의 열정적인 환영에 늦은(50세) 공부였지만, 두 아이를 대학에 다 보낸 뒤 2007년에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여 내 공부와 학교활동을 마음껏 시작하였습니다.

부동산학과 '신화의 7기'들은 1학년 입학식을 시작으로 졸업할 때까지, 아니 지금도 학교사랑과 교수님과의 끈끈한 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용희 교수님은 강인한 첫인상과는 달리 '아버님'의 푸근함과 시인의 섬세함으로 몸이 아프실 때도 부동산학과의 구석구석을 헤아려 주셨으며, 일하고 공부하며 힘든 우리들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동행한 캄보디아 해외탐방시에 낙후된 그곳 호텔에 도착한 순간 우리를 맞이 한 것은 하얀 시트 위에 바퀴벌레였습니다. 호텔 측에 바퀴벌레를 퇴치해 달라고 했으나 잡는 척하다가 그냥 자라고 하는데… 우린 잘 수도 없고 난감해 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경숙 씨, 난 바퀴벌레 하고 친구입니다"하시면서 흔쾌히 방을 바꿔주셨습니다. 너무나 죄송하였지만 아침에 눈을 떠 인사를 드리니 교수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친구랑 잘 잤습니다"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게 교수님의 사랑이구나"를 느끼며 마음이 뭉클해 졌습니다.

작년 8월 SCU 북한산 등반에서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고 나서, 건국대 대학원 입시준비를 하면서 포기할까를 많이 망설이다가, 간신히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작성하여 답답한 마음에 김용희 교수님에게 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메일을 열어보니 교수님께서 컴퓨터로 직접 서명하신 추천서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4년간 지켜보며 느끼셨던 스승님의 사랑을 A4용지 한 장으로 표현해 주신 간절한 내용의 추천서는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목발 짚고 면접가는 도중 영어공부가 안되어 강북강변도로를 달리면서도 돌아갈까? 포기할까? 망설였지만 그때마다 교수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쟁쟁한 면접대기자들을 보면서 또 위축되었고, 면접과 영어시험을 보고나서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지금은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건설개발학회 19기 대표로서, 원우회 미디어홍보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또 '부동산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 공부는 물론 학교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 스승의 날에 교수님을 위해 시를 지어 스승의 날 행사장에 참석했을 때 교수님은 병원에 계셨습니다. 교수님께 드리는 시를 낭독하며, 항상 건강하시어 우리 곁에 오랫동안 함께 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요즈음 유력 언론지에 자주 게재되는 교수님의 글을 보면서 반가움과 자랑스러움, 뿌듯함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며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교수님의 좋은 글을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부동산학과의 자랑스러운 얼굴 '이재웅 총장님'과 '김용희 교수님'을 비롯한 교수님들의 건승을 빌어보며, 우리 학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금융보험학과 김완석(멘토) & 손동애 · 정진욱 · 박지혜(멘티)

이심전심으로 싹튼 우정,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됩니다

그룹명을 묻자, 'FP(Financial Planner) 클럽' 이란다. 은유도 상징도 없다. 이유 역시 담백하다. 부연이 필요한 여느 이름들보다 모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렇다. 멤버들은 모두 내로라하는 자산관리사다. 그 설명만큼이나 솔직하고 화끈한 주인공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본다.

글 | 편집부

산뜻한 바람이 품안으로 스미던 가을 저녁, 'FP 클럽' 멤버들이 서울의 중심 종로에 등장했다. 학업과 업무에 관한 내용은 물론이고 소소한 개인사에 이르기까지, 멤버들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서로의 안부를 챙기느라 여념이 없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지 이제 열 달 남짓, 멤버들 사이에는 이미 따스하고 진심 어린 교감이 깊이 감돌고 있었다.

김완석(멘토)

손동애(멘티)

박지혜(멘티)

정진욱(멘티)

처음 본 순간, 느낌이 확~

김완석 다들 오시는 길 편안했어요? 연락도 자주 하는 편인데, 얼굴 보니 또 할 말이 많아지네요. 대화의 소재가 도통 끊이질 않아, 하하하.

정진욱 워낙 호흡이 좋잖아요, 우리가. 멘토님이 잘 이끌어주신 덕분이지만.

김완석 아이, 무슨 말씀을. 멘티님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림없었을 일이죠.

박지혜 혹시, 첫 대면 당시 기억하세요? 전부 카리스마가 대단하셔서, 개인적으로는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더구나 저는 막내잖아요. 괜히 기가 눌리더라고요(웃음).

정진욱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호호.

김완석 난, 우리 멘티님들 만나자마자 묘한 끌림에 사로잡혔었는데…. 왜 있잖아요. 괜스레 든든하고 익숙한 감정. 아니나 다를까. 겪어 보니 하나같이 심성이 곱고 매사 적극적이시더라고요. 멘토 입장에서 상당히 고마웠죠.

손동애 꼼꼼하고 자상한 멘토님이 계셔서 가능했죠. 저, 실은… 탤런트 권오중 씨 사진이 표지로 실린 학교 홍보책자 보고 반해서 덜컥 입학 결정하긴 했는데, 너무 오랜만에 하는 공부라 여간 막막한 게 아니었거든요.

박지혜 정말요? 권오중 씨 따라서 학교 온 거예요?(일동 박장대소)

손동애 적잖은 영향이 있었지. 제가 또 '한 번 시작한 일은 제대로 끝을 맺자' 하는 성격이라 공부도 기왕이면 좋은 성적 받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온라인시스템의 특성상 혼자 공부해야 한다는 것도 영 부담스럽고.

정진욱 맞아요. 저도 몇 번이고 포기할까 고민했었어요.

손동애 첫 시험 앞두고는 가슴이 다 답답하더라고요. 1학기 중간고사 때 말이에요. 무엇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히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멘토님의 세심한 조언이 없었더라면 시험 결과가 아마……,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웃음).

박지혜 큰언니 말씀에 저도 한 표요. 사실 멘토님이 저희 'FP 클럽'에서 가장 바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늘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참 감사해요.

김완석 왜들 이래요, 부끄럽게(미소).

정진욱 일일이 표현은 못했지만 진심이랍니다, 멘토님!

친구처럼, 가족처럼, 영원히!

김완석 직업이 같은 것도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에 크게 작용했죠. 직장은 달라도 모두들 금융권에서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박지혜 아무래도 공감대 형성이 쉽잖아요. 고충과 보람, 기쁨 등을 누구보다 서로 잘 아니까요. 경우에 따라 위로 혹은 자극이 되기 때문에, 자기 발전에도 긍정적이죠.

손동애 업계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 ·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메리트에요.

박지혜 동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자연스레 인맥까지 넓어졌죠.

김완석 우리 'FP 클럽'의 역량이 새삼 대단하게 여겨지는데요?

정진욱 두 말하면 입 아파요.

손동애 저희 그룹이 그저 지금처럼만 유지됐으면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누구 하나 그만두기라도 한다면, 맥 빠지고 더없이 슬플 것 같아요.

김완석 그럼요. 공부는 마라톤과 똑같아요. 출발선상을 함께했던 사람들 중 하나가 기권을 외치면 남은 선수들까지 의욕이 상실되거든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완주할 수 있다는 의지만 있으면 되죠. 멘티님들이 책을 다시 들었을 때 가졌던 신념, 마지막까지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 염원, 저버리지 않으실 거죠?

박지혜 네, 노력할게요.

정진욱 참, 저 고백할 것 있어요.

손동애 무슨 폭탄 발언이기에 뜸을 들이시나요? 궁금해요!

정진욱 저 둘째아이 가졌답니다. 4개월째라네요.

일 동 진짜에요? 축하해요!

정진욱 학교생활이 앞으로 어려워질 것 같아 많은 도움 주십사 미리 엄포 놓는 거예요, 멤버들한테. 특히 멘토님, 저 끝까지 책임지셔야 해요!

김완석 우리 멘티님들 위해 더 열심히 뛰어야겠네요. 하하.

아차산의 단풍이 한창인 지난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재학생과 교직원, 총동문회원이 아름다운 가을 산을 함께 걸으며 화합과 유대를 돈독히 했다.

산행 통한 동문 간의 돈독한 정 나눠…서사인 등반대회

곱게 단풍 든 아차산 길, 재학생과 총동문회가 함께 걸어요!

숨가쁘게 달려온 일상에서 맞이한 모처럼의 휴일.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안락한 소파 대신 상쾌한 바람이 묻어나는 가을 산을 선택한 서사인들이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총동문회에서 주최한 '서사인 등반대회'를 통해 재학생과 동문은 물론 교직원까지 울긋불긋 곱게 단풍든 산길을 동행한 것. 출발 전, 아직은 서로 낯선 탓에 어색함도 잠깐. 가벼운 걸음으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가을 산의 정취에 흠뻑 빠져 있는 동안 산은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 주었다.

글 | 편집부

이른 아침까지 가을비가 이어지던 지난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소재의 아차산에서 '서사인 등반대회'가 있었다. 찌푸린 날씨 탓에 산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지만, 막상 출발 전에는 날이 개었다. 아차산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좋을 뿐 아니라 근처의 용마산, 망우산과 연결되어 그날의 시간 및 체력에 맞춰 등산 코스의 난이도를 조절하기 좋아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산객들에게 사랑받는 산이다.

또한, 잘 조성된 생태공원과 산행보다 산책에 가까워 가족이 함께 하기에 무난한 아차산성길,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광개토대왕길, 약수터, 절, 고분 등 등산로뿐 아니라 산책로와 역사 유물, 유적 등 볼거리가 다양하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비교적 이른 시간이었지만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은 이미 도심 가까이에서 가을 산의 정취를 느끼기 위한 등산객들로 붐볐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도 여럿 눈에 띄었다.

이번에 총동문회에서 선택한 동의초등학교 출발 코스는 비교적 산세가 험하지 않고 경치가 아름다워 등산초보자도 쉽게 도전해볼 만하다. 가을비로 인해 생각보다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바쁜 시간을 쪼개어 총장님과 교수님, 그리고 직원선생님들도 등반에 참여했다. 낯선 얼굴과 차가운 아침 공기에 어색하던 기운은 몇 마디 인사가 오가고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하는 동안 화기애애하게 바뀌었다. 참가자 전원이 가을비로 촉촉하게 젖어 부드러운 산길을 오르며 나누는 일상의 소소한 대화와 모교 이야기로 힘든 줄 몰랐다. 단숨에 오른 정상에서 함께 내려다본 풍경은 색다른 감동을 주었다. 단풍이 곱게 물든 가을 산은 그렇게 서사인을 품어주고 있었다.

등산 후에는 식당에서 간단한 뒤풀이가 이어졌다. 바쁜 일정 탓에 직접 산행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늦게 뒤풀이에 참여한 교수님과 동문도 있었다. 등반대회에 참가한 한 총동문회 학생은 "이번 산행을 통해 학교 발전을 위한 재학생과 동문회, 교직원간 단합의 원동력을 얻은 것 같다. 한결같은 동문의 참여와 협조로 등반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12인의 현직 CEO 강사와 함께하는

최고의 겨울, '글로벌 CEO 특강'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자본금이다. 이 자본을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중요한 승패가 갈리기도 한다. 서사인에게 2학기는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중요한 시기다. 그러나 방학과 졸업을 앞두고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기간이기도 하다. 특히 직장인들이 재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직장생활의 하반기 업무 마무리와 연말 모임 등으로 자칫 학업에 소홀해질 수 있다. 이에 능력 있는 인재 양성의 선봉에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글로벌 리더의 꿈을 키우는 학생과 기업을 위해 특별한 릴레이 강의를 준비했다. 매주 수요일 현직 CEO 12인에게 듣는 이번 특강으로 실속 있는 겨울을 보내는 건 어떨까.

글 | 편집부

'글로벌 CEO 특강'이 11월 16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서울사이버대학교 2층 국제회의실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열리는 이번 특강은 현직 CEO 강사 12인의 릴레이 강의 형식으로 1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기업시민정신과 글로벌 사회공헌(Corporate Citizenship and Social Responsibility for Global Development)'이라는 부제처럼 기업의 사회공헌과 글로벌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책임 등을 배울 수 있는 특강인 만큼 CSR(사회적 책임 경영: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관심있는 재학생뿐 아니라 기업체 CSR 부서장 및 담당자, CSO(시민사회단체: Civil Society Organization) 또는 NGO 대표와 기업후원책임자까지 수강 대상 또한 폭넓다. 기업시민정신(Corporate Citizenship)은 기업의 사회공헌을 기업의 부가적 활동이 아니라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 가운데 하나로 접근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최근 국내에서도 중요성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과 임직원', '기업과 소비자', '기업과 지역사회', '기업의 글로벌 사회공헌' 등 총 4개 분야, 12가지 주제로 이루어지는 이번 특강은, 개강식과 함께 CEO 지식나눔 공동대표 조영철 사장의 '사람이 미래기업의 핵심'이라는 강의를 시작으로 김수근 원장의 '일류기업의 인재육성', 박찬원 교수의 '소비자의 행동패턴과 제품혁신', 임영학 사장의 '소매유통과 고객 만족', 박종식 사장의 '저탄소 녹색성장', 이강호 사장의 '에너지와 그린경영', 주철기 부회장의 '유엔 글로벌 컴팩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김기용 회장의 '세계농업과 글로벌빈곤 경감', 강정호 원장의 '국제금융과 Corporate Citizenship', 이명우 회장의 '다국적기업의 현지역할', 서병문 교수의 '문화콘텐츠와 국제교류 및 협력'을 거쳐 2012년 2월 8일 한국 해비타트 이창식 회장의 '기업과 NGO의 파트너쉽'이라는 강의를 끝으로 4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친다. 종강일에는 수료식이 진행되며, 3/4 이상 출석한 수강생들에 한해 주관 및 후원기관 대표가 서명한 수료증이 수여된다. 또한, 희망자에 한해 CEO 강사님과 최대 5명까지 멘토링 결연이 가능하다.

서울사이버대학교와 (사)CEO 지식나눔재단에서 주관하고 Global Compact Network Korea와 KCOC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에서 후원하는 이번 특강은 세계무대에서 주목받는 글로벌 CEO의 경영철학과 라이프스타일을 배우고, 보다 넓은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강과 관련한 정보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처(02-944-5275)를 통해 할 수 있다.

조영철 사장

김수근 원장

박찬원 교수

임영학 사장

박종식 사장

이강호 사장

주철기 부회장

김기용 회장

강정호 원장

이명우 회장

서병문 교수

이창식 회장

선배들이 소개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온라인대학, 너무 많아 고민?
전통과 비전을 보고 결정하셔야죠!

지난 2000년 개교 이래, 서울사이버대학교가 배출한 인재들만 해도 수만 명에 이른다. 그동안 꾸준한 성장과 도약을 이룩해 왔다는 뜻이다. 졸업생 및 재학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입을 모은다. 획기적이고 차별화된 교육시스템을 과감하게 도입 · 운용한 쾌거라고. 대내외적으로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세계무대 위에 우뚝 서기 위해 항상 끊임없는 변화를 도모한다.

글 | 편집부

인간복지학부

산업 발전과 더불어 급속도로 진행된 고령화와 저출산, 생활 양상의 변화로 인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는 분야가 바로 인류의 삶의 질과 직결된 복지 산업이다. 따라서 인간복지학부는 절대적 · 상대적 빈곤층 뿐만 아니라 노인, 아동, 여성 등 생애주기상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적, 노인복지적, 복지시설 운영적 대안을 다루고 있다.

사회복지학과 · 오형근 동문(2008년 졸업, 노인복지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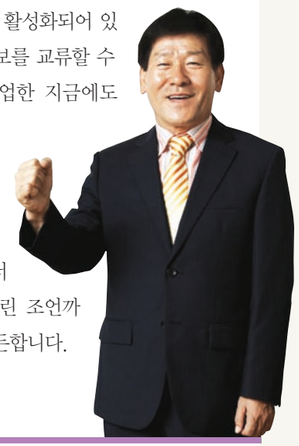
평소 사회봉사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전문 지식을 쌓고 싶은 마음에 늘 기회를 엿보았지만, 마땅한 교육 기관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인터넷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 시간적 여건이 자유롭지 않은 제게는 정말 '딱'이다 싶더라고요. 수업이요? 200%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론뿐만 아니라 각종 실습을 통해 현장에서의 노하우까지 배울 수가 있었으니까요.

노인복지학과 · 윤수민 학우 (4학년, 노인복지시설 의료재활팀 근무)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더 늦기 전에 체계적 교육을 받아야겠다고 판단했어요. 왜 서울사이버대학교였냐고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겐 최선의 수단이죠. 특히 실버산업에 관한 콘텐츠들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는 점이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멘토링 제도에도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선후배 간의 유대감 형성은 물론, 학습 동기를 증진시켜주는 원동력이 됐거든요.

복지시설경영학과 · 임재일 동문 (2010년 졸업, 효孝나눔 복지센터 운영)

한국수자원공사 충주지역에서 수력발전소 설비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차였어요. 인근 어르신들이 마땅한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생활하시는 것을 보니, 여간 답답한 게 아니었어요. 해서, 훌륭한 교수진들을 최다 보유하고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로 편입했죠. 여느 온라인대학과는 다르게, 교수-선후배-재학생 사이의 인적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어 풍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더군요. 졸업한 지금에도 교수님들께서 저희 센터를 종종 방문해 주시곤 하죠. 경영 자문에서부터 애정 어린 조언까지, 너무나 든든합니다.



심리상담학부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기본적인 문제를 경험적으로 다루는 분야로, 인간 행동의 원리에 대해 과학적인 통찰력을 제시한다. 특히 심리학의 응용분야인 상담심리학, 임상심리학, 산업심리학, 법심리학 등은 기초 심리학의 지식을 인간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우리 사회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직접 기여하고 있다.

상담심리학과 · 김광문 학우 (1학년, 엔지니어링 기업 기술설계사)

'마음의 병'이야말로 현대인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이죠. 환경은 여러모로 풍요로워졌으나, 소통의 부재는 훨씬 심각해졌잖아요. 어쩌면 제 스스로가 내적 치유에 목말라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인들한테 속내를 털어놓자,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적극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사이버대학교 최초로 e-Learning 국제대회 은상을 받는 등 체제가 안정화되어 있다는 설명과 함께요. 출장이 잦은 저한텐 그야말로 안성맞춤이더라고요. 어디서건 스마트폰을 통해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스케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도 적격이거든요.

가족상담학과 · 조은희 동문 (2011년 졸업, 서울무학초등학교 상담원)

맞벌이하는 가정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이 같은 사회구조가 얼마나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유아교육기관 교사로 일하면서 수없이 목격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부모와 아이가 건강하게 교감할 수 있는 다리가 되자!' 마침 제가 존경하는 이남옥 교수님께서 서울사이버대학교에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더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원서를 넣었지요. 졸업과 동시에 유용한 자격증들을 거머쥘 수 있다는 점도 커다란 메리트죠.

군경상담학과 · 황인순 동문 (2010년 졸업, 가정상담소 운영&군부대 상담원)

한 봉사단체에 소속되어 수년 동안 군인 및 경찰들을 상대로 상담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던 중 '국내 최초 · 국내 유일'의 군경상담학과가 서울사이버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군부대와 경찰조직의 특수성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시작한 공부였는데, 본래 상담 전공자인 저도 놀랄 만큼 수업은 완벽했어요. 국가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자신감까지 덤으로 얻었답니다.

사회과학학부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금융서비스분야의 전망은 지식서비스 분야 중에서도 상당히 밝은 편이다. 금융서비스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부동산 부문 역시 친환경 개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등 새로운 형태의 주택 수요 증가, 시장의 전면적 개방 등 미래 가치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반면 부동산의 전문화와 금융시장의 결합, 수요자 중심 시장구조의 전환 등 급격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특화된 전문가가 요구되고 있다.

부동산학과 · 이송우 학우(1학년,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있고, 학위가 없었어요. 부동산업계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데, 그 점이 언제나 마음에 걸렸죠.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는데, 서울사이버대학교에 부동산학과가 있는 거예요. 알아보니 평판도 좋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혼자서도 충분히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끔 쉽고 짜임새 있게 강의가 이루어지더군요. 아직 나아가야 할 길이 멀지만, 생애 제일 잘한 선택 같아요.

법무행정학과 · 홍사권 동문 (2011년 졸업, 공인중개사)

신문사 퇴직 이후, 제게는 특별한 활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소를 열었는데, 고도의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제가 무지하여 고객들이 피해를 보는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겠구나 싶어, 서울사이버대학교 법무행정학과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죠. '교육과학기술부 대학평가 1위' 라는 타이틀에 빛나는 대학이잖아요. 4년 내내, 저를 실망시킨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실무 위주의 교육 덕분에, 저희 공인중개사무소도 날로 번창하고 있답니다.

보건행정학과 · 김제석 학우 (1학년, 병원 근무)

온라인대학과 오프라인대학의 차이점이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개인에 따라 시간을 적절히 조율할 수 있어 장점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학생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특강을 열어주시는 교수님들의 배려는 아마 여타 대학에서는 만나기 어려울 거예요. 관련 자격증 취득이야 기본이죠!

경상학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무역량 급증, 해외사업 진출, 다국적기업 출현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기를 보는 남다른 관점과 창조적 사고력을 지닌 무역전문가와 전문경영인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 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된 까닭이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적 실무 감각과 탁월한 대안 제시 능력을 지닌 글로벌 경영 전문가를 책임진다.

경영학과 · 김지혜 학우(4학년, 국제보석감정사)

쥬얼리회사 CEO로서 보다 전문적인 경영적 지식이 절실했어요. 하지만 출석에 대한 부담은 떨칠 수가 없었죠. 지원 못하고 망설이던 중 서울사이버대학교 광고를 보게 됐는데, 제가 원하는 조건에 딱 부합하는 거예요. 운이 좋았죠. 양질의 커리큘럼은 물론, 명망 높은 교수진들과 단번에 인연을 맺을 수 있었으니까요. 늦었다고 단정 짓지 마세요. 공부는 그 무엇보다 투자 수익이 높은 상품이거든요.

국제무역물류학과 · 최익재 동문 (2009년 졸업, (주)유엔아이로지스 대표)

국제물류주선업 창업 후, 다채로운 무역업무 및 물류지식을 고객한테 전달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어요. 두 분야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가 가장 믿을 만했고요. 특히, 실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킬 수 있도록 진행되는 강의는 어디에서도 만나보기 힘든 시스템이었죠.

금융보험학과 · 김원민 학우 (2학년, 전 대한생명KLD 부지점장)

언젠간 반드시 공부하리라 계획해오던 학문이었어요. 근데, 막상 도전하려니 걱정부터 앞서더라고요. 오랜 친구가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라면 문제없을 거라더군요. 사이버대학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AFPK자격인증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하니, 더 신뢰가 갔죠. 투자상담사 · 손해사정사 등 핵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도 빠짐없이 개설돼 있어, 졸업 뒤 인생이 아주 기다려집니다.

IT · 디자인학부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가 가속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디자인 및 멀티미디어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는 추세다. 광고 · 출판 일러스트레이션, 캐릭터 디자인, 3D 영상 등의 새로운 멀티미디어 수단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과 웹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산업 디자인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대표적인 미래 유망 산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컴퓨터정보통신학과 · 김확용 동문 (2011년 졸업, EDW 관리 및 개발자)

업무상 4년제 대학 졸업장이 필요해 진학했지만,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시대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수업 내용을 통해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전의 저였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역량 있는 선후배님들을 알게 된 것도 크나 큰 소득이었죠.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 박환운 동문 (2005년 졸업, 디자인 광고회사 대표)

디자인 작업에 있어 프린트미디어의 한계를 극복하려거든 멀티미디어와의 접목이 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저한텐 해당 지식이랄 만한 게 없었죠. 결국 직장 생활과 학업을 병행해야 했는데, 온라인대학이 그 최적의 시스템이겠더라고요. 더구나 서울사이버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는 효율적인 수업 방식으로 익히 정평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소감이요? 콘텐츠의 질적 수준이 최상급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사이버대와 강북구청이 함께 만드는 복지 1등구, 교육 으뜸구!

'복지 1등구' 강북구청이 '교육 1등구'를 향한 도전으로 발걸음이 빠르다. "교육의 본질은 소질계발과 인성계발"이라는 기치 아래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책 읽는 강북구 만들기' 등 으뜸 교육구 사업을 추진 중인 것. 이에 강북구 관내 최고의 온라인 교육기관인 서울사이버대학이 위탁교육 지원을 통해 강북구청의 도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강북구청과 우리 대학교는 구청 직원들의 교육뿐 아니라 향후 강북구민들의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위한 동행을 함께 할 계획이다.

글 | 편집부

서울사이버대학교와의 위탁교육 협약을 통해 직원들의 자기계발 및 실무 교육 기회를 얻고 있는 '복지 1등구, 교육 으뜸구' 강북구청은 구민들의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사회발전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특히 지난 8월부터 자기주도학습지도자과정을 개설한 서울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은 강북구 주민에게 자기주도학습에 관한 무료특강을 제공, 지역사회 기여는 물론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강북구청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정부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아동급식 사업 우수사례 기관 선정' 등 건물을 뒤덮고 있는 현수막들이다. 지자체 호화청사 문제로 말이 많은 요즘 강북구청의 건물은 딴 세상처럼 단출하고 소박하다. 건물 내부는 더하다. 복도며 민원실은 반질반질 윤이 나고 깨끗하지만 낡은 태가 난다. 구청장실도 마찬가지다. 아담한 크기에 소박한 가구들은 짝을 맞춘 게 없다.

복지와 교육 행정은 전국에서 으뜸

그러나 복지만큼은 다르다. 강북구의 복지와 교육 행정은 전국에서 으뜸이다. "청사가 낡아서 손님 맞을 때 죄송스럽네요. 조금만 있으면 우리 구청, 박물관 등재해도 되겠죠?" 털털하게 웃는 박겸수 강북구청장의 얼굴에는 구(區)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하다.

건물 외벽을 빼곡하게 채운 현수막들이 말해주듯, 요즘 강북구청은 겹경사로 잔치 분위기다. 박겸수 구청장의 취임 이래 지난 2년간 매진해 왔던 사업들이 최근 결실을 맺고 있는 것. 올 한해에만 서울시, 정부기관 등 대외기관 평가에서 13개나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11월 보건복지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정부 평가'에서 대도시 분야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것을 비롯해 2011년 '아동급식 사업 우수사례 기관 선정' 심사 결과 우수 지자체로 뽑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박겸수 구청장은 이 모든 공로를 구민과 구청 직원들에게 돌린다. "요즘은 우리 직원들과 구민들 자랑하느라 바쁩니다. 그 낙으로 살아요." 박 구청장은 앞으로도 삶의 질을 높이는 감동 복지 실현을 통해 구민들에게 삶의 희망과 자신감을 찾아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북구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동행

강북구청이 복지 외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바로 자기계발과 교육이다. 최근 '강북구 으뜸 교육구' 추진 사업을 진행 중인 강북구청은 최고의 온라인 교육기관인 서울사이버대학교와 위탁교육 협약을 맺고 있다. 21세기 정보화 · 전문화 시대에 상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대학은 새로운 이론과 기술 습득기회를 제공하고 강북구청은 소속 임직원의 자기계발 및 실무 교육의 기회를 확보하고 있는 것. 현재 서울사이버대 학부 과정 및 사회복지, 상담심리 석사과정 대학원에는 다수의 강북구청 직원들이 재학 중이다.

뿐만 아니라 강북구청과 우리 대학은 구민들의 교육복지 혜택을 위한 동행도 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자기주도학습지도자과정을 개설한 서사대 평생교육원은 강북구청과 성북교육지원청과 함께 강북구 주민에게 자기주도학습에 관한 무료특강을 제공, 지역사회 기여는 물론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서울사이버대학역(미아역 병행표기) 주변은 강북구 중심부에 있지만, 그동안 인근 수유역, 미아삼거리역에 비해 계획적 관리 수단 부재로 상대적으로 역세권 기능이 열악한 실정이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미아(서울사이버대학)역, 미아삼거리역, 수유역은 강북구뿐 아니라 서울 동북부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교육, 문화, 쇼핑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족거점 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프라인 대학에 비해 시 · 공간적 제약이 적을 뿐 아니라 1만 2천명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의 재학생을 자랑하는 서사대야말로 대중적 대학교육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이처럼 강북의 물리적, 정신적 대중교육의 중심에 선 서사대는 강북구청과 함께 구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모색해 추진할 계획이다.

Mini Interview

박겸수 강북구청장

구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생활밀착형 행정' 구현

박겸수 강북구청장의 하루는 새벽녘 북한산에서 시작된다. 맑은 공기 마시며 하는 산행이 좋은 이유도 있지만, 운동으로 아침을 여는 구민들을 만나기에 북한산 자락 약수터만큼 좋은 곳이 또 없기 때문이다. 자택에서 도보 20분 남짓한 출퇴근 거리도 차를 타는 법이 없다. 구민들 틈에 끼어 걷고 뛰며 눈 한 번 더 맞추고 말 한마디 더 건네야 직성이 풀린다.

백성 섬기기를 하늘과 같이하라는 '사인여천(事人如天)'을 구정 철학으로,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비전으로 삼은 박 구청장의 생활밀착형 행정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청장실을 개방해 매일 구민들을 만나는 열린 구청장실, 재개발 · 재건축 주민참여제, 청렴행정, 다산아카데미 운영 등의 노력으로 이어진다. 행정과 정치의 주 목적이 주민에 대한 봉사와 서비스라고 생각한다는 박 구청장이 최근 가장 많은 힘을 쏟고 있는 것은 교육이다.

그는 "꿈을 꾸는 것은 아이들이지만 이를 키워주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소질을 발견해야 성공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한다. 엄마가 명품백이 아닌 명품북을 들면 아이들의 미래가 바뀐다는 것. 훌륭한 인적자원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이라고 믿는 박 구청장은 현재 'U(유비쿼터스)-도서관' 운영과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설립 등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강북의 중심에 위치한 서울사이버대학교가 강북구의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평생교육 사업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MUSICAL

조로 (Zorro)
매혹의 어드벤처 뮤지컬

전 세계에서 100년간의 사랑을 받아온 매력적인 '조로(Zorro)'. 매력을 넘어선 마력의 힘을 가진 로맨틱한 영웅의 모험 이야기가 뮤지컬로 펼쳐진다. 2008년 7월 15일 런던 웨스트엔드 게릭시어터(Garrick Theatre)에서 시작된 〈뮤지컬 조로〉는 아찔한 공중 아크로바틱, 관중을 압도하는 스펙터클한 검술 대결, 마술이 어우러진 대작으로 재탄생 시킨 연출가 크리스토퍼 렌서(Christopher Renshaw), 전통적 플라멩코 음악의 진수 라틴의 열정이 넘치는 집시킹스(The Gipsy Kings)의 음악, 태양 같은 뜨거운 정열의 플라멩코의 라파엘아마르고(Rafael Amargo)의 안무로 런던에서 이미 흥행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지금까지 파리, 브라질, 일본, 모스크바에 이어 이제 대한민국 서울에서 그 막이 올랐다.

■ 기간 : 2011. 11. 4 ~ 2012. 1. 15
■ 장소 :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 출연 : 조승우, 박건형, 김준현, 조정은, 구원영, 문종원, 최재웅 등

CONCERT

유니버설발레단 호두까기인형
꿈과 모험의 판타스틱 발레

프랑스 파리 출장길에서 처음 만난 영롱한 음색의 '첼레스타' 라는 악기를 비밀리에 러시아로 수입하는 첩보작전까지 구사했던 차이코프스키, 그리고 어린이들이 출연하는 색다른 발레를 고안하고 보조 안무가였던 레프 이바노프와 함께 발레를 안무했던 마리우스 프티파의 노력은 1892년 마린스키 극장에서의 초연을 맞이했지만, 참담한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작품을 거들떠보지 않을 정도로 차이코프스키의 낙심이 대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안무의 문제점을 보완한 〈호두까기인형〉은 크리스마스 시즌 특수와 아이들을 위한 발레라는 독창성으로 대성공을 거두기 시작했다. 러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무대를 넓힌 〈호두까기인형〉은 수많은 안무가에 의해 다양한 버전으로 발전, 오늘날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 기간 : 2011. 12. 21 ~ 12. 31
■ 장소 : 유니버설아트센터

Book

군경상담학과 이자영 교수 추천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시각인식 불능증, 음색인식 불능증, 역행성 기억상실증, 신경매독, 위치감각 상실, 투렛증후군, 자폐증 등 기이한 신경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들의 기적과도 같은 감동적인 삶을 신경학자의 전문적 식견과 따뜻한 시선으로 조명해낸 책. 올리버 색스는 임상에서 환자들을 만나오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미묘한 조화와 부조화에 주목하였다. 이 책에 등장하는 환자들 대부분은 신경장애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극도의 혼란 속에서도 성장과 적응을 모색하며 자신의 감추어진 능력을 일깨워나가는 사투를 벌이고 있다.

올리버 색스 지음, 조석현 옮김, 이마고

상담심리학과 이우경 교수 추천 공중그네

뾰족한 물건만 보면 오금을 못 펴는 야쿠자 중간보스, 어느 날부턴가 공중그네에서 번번이 추락하는 베테랑 곡예사 등 그들을 맞이하는 하마 같은 덩치를 지닌 엽기 정신과 의사 '이라부' 와 사계절 내내 핫팬츠 차림으로 나다니는 엽기 간호사 '마유미', 이들의 못 말리는 황금 콤비를 다룬 이 책은 일본 현지에서 '최고의 이야기꾼' 으로 평가받는 작가 오쿠다 히데오의 131회 나오키상 수상 작품이다. 엽기적인 행동과 유쾌한 사건들로 이어지는 이 책은 결국 '이라부' 박사만의 독특한 치료법이 환자들에게 돌파구를 찾아주는 과정을 통해 독자들에게 '행복 바이러스' 를 퍼뜨린다.

오쿠다 히데오 지음, 이영미 엮음, 은행나무

PUZZLE

아래의 문제를 잘 읽어보면 답이 보입니다. 본 퀴즈 정답은 서울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홈–대학생활–이벤트)로 들어가서 보내주면 됩니다. 정답 맞추신 분을 추첨하여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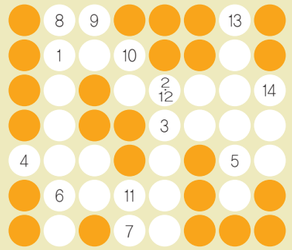
가로열쇠

1. 말을 기르는 집
2. 일정한 격식에 맞추어 구성원 전체가 통일하여 입는 옷
3. 곡식이 잘 자라고 잘 여물어 평년보다 수확이 많은 해
4. 고기를 파는 곳
5.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생의 학과 이수를 계산하는 단위
6. 우리나라를 이르는 말. 국호
7. 네트를 사이에 두고 발과 머리만으로 하는 배구와 축구의 혼합형 스포츠

세로열쇠

8. 마음을 합하여 열리는 서사대의 가을 운동회 명칭
9. 나이가 비슷한 사람을 친근하게 이르는 말(동무, 벗)
10. 상점이나 빌딩 외벽에 상가명이나 브랜드를 사람들의 눈에 잘 뜨이게 걸어놓은 표지
11. 일정한 지역에서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
12. 가을에 붉은빛이나 누런빛으로 변한 나뭇잎
13. 노인과 관련된 신체, 심리, 사회, 복지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하면서 종합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학과
14. 다양한 상품을 한 곳에서 진열 판매하는 대규모의 현대식 상점

2011 겨울호 문제



2011 가을호 정답

■ 2011 가을호 당첨자 & 한마디

박은주 : 자신을 극복한 감동적인 에피소드나, 동문들의 대학원 진학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주셨으면 해요!

김기용 :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우들의 학업에 대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훈훈한 이야기를 보고 싶습니다.

김미경 : 처음 보게 되었는데 참여할 수 있는 퀴즈페이지가 있어 참 좋았어요. 백일장이나 동화, 시, 꽁트 같은 다양한 장르의 공모전을 통해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윤희 : 지역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이나, 학우들의 졸업 후 진로 방향과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네요.

이혜성 : 항상 알찬 내용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다양한 학우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함으로 인해,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많은 응원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참 좋습니다. 사이버대학이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서로 마주하는 연결고리 역할 항상 감사합니다!

전영미 : 짜임새 있게 잘 짜여진 SCU e야기 잘 읽어보았습니다. 문화활동과 사회적 이슈, 그리고 또 사서인들의 향후 진로와 선배 졸업생들의 성공담을 좀 더 많이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미선 : 학과별 교수님의 조언 한 마디가 있었으면 좋겠고, 학생 참여 이벤트도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장지훈 : 취업에 관한 이야기가 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광희 : 학생들의 학습수기와 대학원 진학에 관련된 정보를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김효정 : 지금도 내용은 알차고 좋지만, 퀴즈 문제를 좀 더 어렵게 해주시면 찾는 재미도 더 해질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학과 박형원 교수 추천 조벽 교수의 인재 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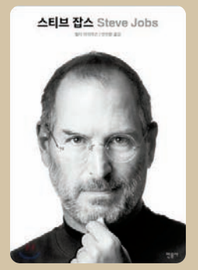
더 이상 교육의 '100미터 달리기' 가 아닌 '마라톤 경주' 에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는 『조벽 교수의 인재 혁명』은 교육혁신의 회오리 속에 제 목소리를 잃어버린 교사들에게, 대학입시가 자녀교육의 전부가 되어버린 채 지쳐가는 학부모에게, 꿈을 접고 현실에만 안주하려는 젊은이들에게 뜨거운 자극이 될 것이다. 또한 기업을 비롯하여 인재 육성을 책임진 각 분야의 리더들에게 우리 사회 전체가 글로벌 시대의 인재 강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그 비전과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조벽 지음, 해냄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향아 교수 추천 스티브 잡스

2011년 10월 5일. 애플의 공동 창업주이자 전 CEO, 21세기를 움직인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는 우리 곁을 떠났다. 평생을 신비주의로 일관하던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유일한 공식 전기 『스티브 잡스』를 써 달라고 요청했다. 그것은 아마도 평생 살아오면서 쌓은 '약간의 지혜' 를 세상에 남기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 책은 CNN의 전 최고 경영자이자 《타임》 전 편집장인 월터 아이작슨의 독점 인터뷰를 통해 완성되었다. 그의 전 생애와 우리 모두의 디지털 삶을 바꾼 혁신의 핵심 원천이 최초로 밝혀진다.

월터 아이작슨 지음, 안진환 번역, 민음사



Netiquette

메신저 피싱 사기

점점 진화하는 범죄, 각별 주의 요망

메신저 피싱 사기란, 2009년부터 국내에서 갑작스럽게 급증한 범죄로, 다른 사람의 메신저 계정에 로그인하여 그 사람을 사칭하여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사기범죄이다. 주로 메신저에 접속해서 등록된 사람들에게 "지금 급전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내 계좌이체를 하도록 유도하는데, 보통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번호를 대며 "그 사람에게 주기로 되어 있는 돈"이라는 등 변명을 하여 상대를 납득시키기도 한다. 이는 상대와 직접 만나든지 연락이 닿기 전까지는 사기 사실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스 피싱

보다도 뒤늦게 자신이 당했다고 깨닫게 되는 것이다. 사람의 친분과 신뢰관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악질적인 범죄이며, 최근에는 스마트폰까지 메신저 피싱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더욱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다음은 메신저 피싱 예방 방법이다.

- 메신저를 통해 지인이 계좌이체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전화 등으로 확인
- 메신저 비밀번호는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교체
- PC방 등 다중이 이용하는 컴퓨터에서 메신저 로그인 후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로그아웃
- 개인 PC에 보안프로그램 설치, 주기적인 검사 실시
- 메신저 피싱 피해 발생시, 경찰 및 메신저 업체에 즉시 신고

국내 메신저 프로그램인 네이트온의 경우 사기가 의심될 경우 대화 상대방이 신청하면 공인된 본인인증(휴대폰으로 인증번호 보내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확실히 상대방이 아닐 경우 피싱 신고를 하여 그 사람과 대화하는 모든 사람에게 피싱을 주의하라는 문구를 띄울 수 있게 해준다.

Love SCU

내 인생의 소울메이트, GOOD SCU!

글 | 탁미연(사회복지학과, 2007년 졸업)

나는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다니기 전에 호텔관광과를 졸업한 후 호텔에서 실습도 하고 근무를 한 적도 있다. 결혼하고 나서는 살림에 주력했지만 시간적 여유가 생겨, 남편이 자기계발 차원에서 사이버대학 진학을 적극 추천했다. 그때 남편의 지인으로부터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유일하게 원격대학만으로 시작하여 전국에 학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강력한 콘텐츠 개발 자원과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전부터 들어왔기에, 망설임 없이 지원을 할 수 있었다.

21세기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한다. 공장이 최고의 가치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토목공사가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지도 않을 것이다. 아마도 아이폰이나 페이스 북과 같은 '신개념' 의 디지털 아이템이 최고의 가치를 창출한다고 본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잘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회복지학과에 지원을 하게 되었다.

사회복지학과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이라는 사실이다. 노인들의 삶과 유아들, 장애인들의 삶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사회복지학과는 많은 역할을 국가와 사회로부터 부여받았다고 보며, 사회복지학과의 또 다른 장점은 내실 있는 교육내용과 수준 높은 교수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자격증 취득과 그에 맞는 이론적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닐까?

나는 졸업 후, 사회복지사 지망이었고, 노인 인구도 늘어가는 추세에 맞추어 노인복지과에 진학하는 것은 어떨까도 생각했었지만 유아들과 지내는 것이 성격에 더 맞는 것 같아 보육교사로 진로를 정하게 되었다. 원래 관광을 전공하여 아동복지나 보육에 대해서 문외한이었던 나였지만, 서울사이버대학교 수업을 수강하면서 아동에 대한 보호와 교육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보한 덕에, 졸업 후에는 금방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어린이집 교사로 4년 정도 근무, 현재는 가정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든든한 학교 법인에서 사이버대학만을 육성하는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학교이다. 콘텐츠 개발을 위한 시설과 기술진들이 다른 대학에서 흉내낼 수 없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질 좋은 교육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한다. 사이버대학의 서울대학교인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평생교육이라고 말하고 싶다.

SCU College System

SCU 학사제도 해설 시리즈 3

성적이 궁금해요

학기 성적평가

■학기 중 실시한 다양한 성적평가 항목을 종합하여 성적이 확정됩니다.

- 우리 대학의 성적평가항목은 정기시험(중간, 기말고사), 출석, 기타 참여도, 과제, 팀프로젝트, 토론, 수시고사 등을 종합하여 성적을 부여합니다.

■항목별 반영비율

- 성적 평가를 위해서는 최소 4개 이상의 평가항목을 활용하여야 하며, 항목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항목	배점
정기시험	0~50%(중간, 기말고사 각 30% 이내)
출석	0~20%
기타참여도	0~10%
과제 · 팀프로젝트	각 0~50%(단, 과제 1회당 배점 20% 이내)
토론 · 수시시험	각 0~30%

- 성적평가항목의 선정 및 항목별 배점은 각 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이며, 이는 아래의 수업계획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업계획서]** (위치 : 학생포털〉 강의동〉 강의동홈〉 '전체 진도율 현황' 의 과목별 '수업계획서 열람' 클릭〉 수업계획서 조회)

성적등급 및 평점

■등급 및 평점표

- 각 교과목별 등급 및 평점은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

등급	평점	등급	평점
A+	4.5	C	2.0
A	4.0	D+	1.5
B+	3.5	D	1.0
B	3.5	F	0
C+	2.5	P	불산입

- 특정 교과목에 대하여는 실점과 평점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급제(Pass)와 낙제(Fail)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급제는 P등급, 낙제는 F등급으로 표시합니다.

■성적은 D등급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합니다.

- D등급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경우 F(낙제)로 표기하고 학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성적의 취소

-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성적평가 기준

■ 본 대학교의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 상대평가 시 등급별 분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프라인 실습이 부과되는 과목과 수강인원이 30명 미만인 과목은 절대 평가로 성적 부여가 가능합니다. 절대평가 시 부여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비율
A+	0~10%
A	0~20%
B+~B	20~40%
C+, C, D+, D, F	잔여비율 범위 내

점수	100~95	94~90	89~85	84~80	79~75	74~60	69~65	64~60	59~0
등급	A+	A	B+	B	C+	C	D+	D	F

■모든 평가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또한 각 평가의 기초자료는 LMS(학사운영플랫폼)에 통합 보관 관리되고 있습니다.

성적평가 시 감점 사항

■추가시험 응시자의 성적처리

-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추가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취득한 점수의 최대 80%까지만 인정합니다.

■평가지연자의 성적처리

- 평가 항목 중 과제, 팀프로젝트 등의 결과물은 지정된 기일 내에 지정된 방법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마감 후 제출 시엔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80% 까지만 인정 합니다.

성적이의 신청 및 정정

- 기말고사 종료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공시된 성적을 확인하여 성적처리의 착오 및 평가 항목의 누락에 의해 점수가 낮게 나온 경우에는 해당 성적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위에 예시된 사항 외에는 담당교수 또는 교무처 검토 과정에서 반려됩니다.

글 | 남상규 교무부처장

SCU 온라인 학습수기

장하다, SCU와 함께 한 나의 학습의지!

직장과 가정, 학생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해결 방법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어, 근무시간 중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했다. 예를 들면 점심시간 30분 줄이기, 커피타임 줄이기, 화장실 줄이기, 퇴근시간 30분 늘이기 등이 그러하였다. 회사 일도 많다보니, 계절 학기를 100% 활용했다. 여름학기 2과목 6학점, 겨울학기 1과목 3학점을 이수했다.

글 | 홍영화(노인복지학과 2010년 졸업)

나는 초등학생인 두 아들과 매일 조금 멀리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남편을 둔 가정주부이자 직장인이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직장과 가정을 오가며 가정에서는 엄마로,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 그렇게 시간에 쫓기며 살았다. 그러던 중 아무 것도 이루어놓은 것 없이 세월만 흘러가다 갑자기 인생의 무의미함을 느끼게 되어, 이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한 끝에, 직장생활 마감 후에는 봉사활동으로 여생을 보내자는 생각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학과 3학년으로 편입했다.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공부하기란 역시나 쉽지 않았다. 직장에서는 일이 바빠서 공부를 하기가 힘들었지만, 시간 날 때마다 강의를 조금씩 들었다. 하지만 곧 직장동료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퇴근 후 집에 가면 당장 아이들 저녁해 먹이고 어질러진 집 치우고 아이들의 공부까지 봐주고 나면 밤 11시나 되어야 나만의 시간이 돌아와 시간이 매우 부족했다. 몸은 한없이 지치고 강의를 들으면 눈은 저절로 감겼지만, 큰 소리를 쳐놓고 시작한 일이니, 그냥 흐지부지 공부하기는 싫었다.

해결 방법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어, 근무시간 중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했다. 예를 들면 점심시간 30분 줄이기, 커피타임 줄이기, 화장실 줄이기, 퇴근시간 30분 늘이기 등이 그러하였다. 회사 일도 많다보니, 계절 학기를 100% 활용했다. 여름학기 2과목 6학점, 겨울학기 1과목 3학점을 이수했다.

또한 주말에는 아이들한테 참 많이 미안했지만 도서관에 가서 못 들은 강의 듣고 교안을 정리하기도 했다. 미리 교안을 출력해서 예습은 못했지만 강의 들으면서 중요한 부분 체크해 놓고 강의 끝나면 중요한 부분만 다시 나만의 자료를 만들어 두었다. 중간, 기말고사라고 해서 따로 시간을 낼 여유는 없었지만, 어차피 시작한 공부, 확실하게 하고 싶었다. 물론 장학금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 결과도 좋았다.

처음의 느낌 그대로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나만의 공부는 충실히 했지만 주말을 거의 도서관에서 보내다 보니 아이들에게 체험학습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지 못해 많이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시간의 촉박함은 도무지 변하지 않아 한창 힘들어할 때, 온라인 강의 중에 박형원 교수님 과목을 우연찮게 3과목이나 듣게 되었다. 박 교수님의 수업은 참 푸근하고 안정된 분위기가 들었으며, 강의안도 공부하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다. 하루는 교수님께서 짤막한 시 한 편을 올려주셨는데 생활에 찌들어 힘들어하는 나를 위로하는 듯한 내용이라 직장인으로서, 엄마로서, 학생으로서,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해 내느라 지친 삶에 잠깐이나마 활력소가 불어 넣어진 기분이 들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은 나와 같은 직장인 비율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삶에 지쳐 한 곳에 정체되지 않고, 우리가 변화와 더 밝은 미래를 꿈꾸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 측의 더 많은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린다. 나 또한,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인터넷 상에서 처음 접했을 때 끌렸던 느낌처럼 끝까지 열심히 해서 내가 생각하고 꿈꾸었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이다.

차세대 학습 시스템

SCU Learning WAVE 특허 취득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011년 11월 11일 교수학습시스템인 SCU Learning WAVE 중 콘텐츠를 개발하는 시스템인 LCDMS에서 학습객체 단위별로 개발, 콘텐츠를 조합해낼 수 있는 방법 및 기술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특허명 : 객체단위 기반 학습 콘텐츠 개발 시스템, 출원번호 : 10-2011-0009645)

SCU Learning WAVE는 이러닝 콘텐츠 기획부터 개발, 최종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교수학습시스템이다. 콘텐츠를 학습객체 단위로 개발 · 저장 · 관리 · 제공하는 콘텐츠 관리와, 학습과정을 지원하는 학습자 관리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이 시스템은 지난 5월 미국에서 개최된 IMS 러닝 임펙트 어워드 2011' 에서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특허는 사이버대학의 학습에 관한 전반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는 첫 특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국내 이러닝 콘텐츠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학습자원 제시의 획일성, 형태의 단순함,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의 문제에 대해 해법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학교 측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변환과 개발이 가능해 이러닝 표준화를 준비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대학이나 기관이 도입할 경우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이러닝 노하우
아시아 국가에 본격 전수

서울사이버대학교 – KT 이러닝센터 구축 협력

서울사이버대학교는 9월 28일, KT와의 협력을 통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연합(ASEAN) 4개국에 이러닝센터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ASEAN의 요청에 따라 시작된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KT가 한국국제협력단과 이러닝센터 공적개발원조 사업추진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이러닝 시스템 및 과정 운영 노하우 전수, 콘텐츠 제작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이재웅 총장은 "이번 이러닝센터 구축은 국내 이러닝 서비스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닝 센터 구축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아세안의 요청에 따라 시작된 프로젝트로 한국과 아세안 간의 지속 발전 가능한 교육 파트너쉽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4개국을 대상으로 실무회의와 현지조사, 한 · 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 마스터플랜 논의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왔다. KT가 한국국제협력단과 이러닝센터 공적개발원조 사업추진 계약을 체결하며 이러닝센터 구축이 본격화 됐으며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이러닝센터 구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닝 시스템 및 과정 운영 노하우 전수, 콘텐츠 제작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센터는 캄보디아공과대학, 라오스국립대학, 미얀마 기술대학, 베트남 하노이공과대학 등 대학 내 구축되며 수강생 모집, 교육 시행 등은 각 대학 센터가 수행하게 된다.

한국대학신문 대학대상 교육콘텐츠 부문 대상 수상

한국대학신문이 주관하는 '제11회 한국대학신문대상 시상식' 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가 교육콘텐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대학대상은 4년제 대학 17곳, 전문대학 2곳, 사이버대 1곳 등 20개 대학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학대상은 한국대학신문이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5년 제정한 상으로 올해는 현장추천 · 내부심사 절차를 거쳐 각 부문별 우수대학 수상자를 가렸다.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하세요"

2012학년도 대학원 전기 입학설명회 개최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원장 허묘연)에서는 11월 18일 본교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12학년도 전기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기 모집은 휴먼서비스대학원(사회복지학 석사과정) 60명과 상담심리대학원(상담심리학 석사과정) 78명 총 138명을 선발하며, 11월 7일부터 28일까지 모집을 마쳤다. 선발 방법은 1차(서류전형)로 자기소개서 및 경력서, 학업 · 연구계획서, 학부성적 등을 평가한 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및 구술시험을 치룬다. 학사학위 소지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울사이버대학원의 수업은 각 전공별 특성화된 교육과정에 전문강사진과 튜터의 운영을 토대로 하며, 모든 수업과 학사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 등에게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스리파툼(SRIPATUM)대학 총장 등 대표단 방문

태국 명문사립대학인 스피라툼대학의 Rutchaneeporn Pookayaporn Phukkamarn 총장 등 21명의 대표단 일행이 10월 4일 본교를 방문하였다. 현재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이러닝 시스템 개발을 역점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스피라툼대학은 벤치마킹대상을 모색하던 중, 우리나라 최고의 사이버대학인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선택하여 방문하게 된 것이다. IT공과대 · 건축대 · 커뮤니케이션 기술대 · 경영대학장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은 SCU 러닝웨이브(learning wave)에 비상한 관심을 표명하고, 동 시스템의 강점, 온라인 교과평가 시스템, 이러닝 운영과 관련 교수-학생-시스템운영자의 애로사항, 해킹 가능성 등 이러닝 교수법과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하였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모바일 웹 표준 준수율 사이버대 중 1위

스마트폰 열풍이 불면서 스마트폰용 홈페이지를 뜻하는 '모바일 웹사이트' 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앞다퉈 모바일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이용자를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곳도 늘었다. 그렇지만 대학들은 이러한 스마트폰 열풍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웹접근성인증위원회(KWAC)와 웹발전연구소(www.smartebiz.kr) 및 마중물소프트(www.mjmsoft.co.kr)가 공동으로 조사해 10월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웹사이트를 개설한 대학은 4년제 대학 205곳 중 70곳, 전문대학 146곳 중 31곳, 20개 사이버대 중 9곳이었다. 전체 대학 371곳으로 볼 때는 110곳으로 30%만 모바일 웹사이트를 개설한 셈인데, 사이버대 중에서는 서울사이버대학교가 1위를 기록했다.

'전국 지역 캠퍼스 특강의 날' 개최

'전국 지역 특강의 날' 행사가 9월 17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신 · 편입생 및 지역주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교수와 재학생 사이의 오프라인 유대관계를 증대시키기 위해 기획된 이번 특강은 온라인 강의에서 볼 수 있었던 각 학과 교수진이 전국에 있는 5개 지역학습관을 직접 방문하여 강의를 진행되었다. 행사 당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특강은, 17일 ▲부산(부산지역의 부동산 시장과 전망 / 부산동의대 강정규 교수), 24일 ▲인천(사이버에서의 자기주도적 학습 / 상담심리학과 김현진 교수), ▲강원(대학입학전형과 청소년정책 / 사회복지학과 김윤나 교수), ▲대구(글로벌 리더십 / 국제무역물류학과 이완형 교수) 등에서 진행되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경기, 강원, 호남, 대구, 부산, 연무대 등 총 6곳에 지역학습관을 두고 있으며, 재학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캠퍼스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매달 '전국 지역 특강의 날' 을 진행하고 있다.

2011 서울사이버디자인대전 개최 21세기형 컴퓨터그래픽 전문가 양성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1세기형 컴퓨터그래픽 디자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제4회 2011서울사이버디자인대전' 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감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개성화와 전문화, 다양화를 추구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응모분야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부문 ▲시각디자인 부문 ▲사진부문 등 총 3개 부문이었다. 시상식은 12월 10일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열렸으며, 대상을 비롯한 수상작들은 총 1,500만원의 상금을 수여받았다. 특히 특선 이상 수상작은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북서울 꿈의숲 아트센터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글로벌CEO 특강

'기업시민정신과 글로벌 사회공헌' 주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11월 16일부터 시작하여, 2012년 2월 8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의 전 · 현직 CEO들을 주강사로 하는 글로벌 CEO특강을 주최한다. 이번 특강은 기업의 사회적 공헌의 영역이 점차 국내에서 해외로 확대되는 것과 발맞춰 개도국에 진출하는 기업들과 현지 지역사회의 우호적인 관계설정전략을 사례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3/4이상 출석한 수강생들에게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총장 및 후원기관 대표가 서명한 국 · 영문 수료증이 수여된다. (문의 : 02-944-5275)

부동산 CEO 아카데미 개최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를 초청해 누구나 참여 가능 한 무료 공개특강인 '부동산 CEO 아카데미' 를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 11월 19일 총 3회에 걸쳐 개최했다. 특강 주제는 10월 29일에는 ▲부동산자산관리 현황과 전망(박형중 SIPM수석연구원) ▲2012부동산 시장전망(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부동산 금융과 부동산시장 리스크(박종덕 KDB증권 박사)이었으며, 11월 12일에는 ▲주택시장의 현황과 과제(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부동산 자산관리시장(김용남 글로벌 PMC 사장) ▲임대주택 정책과 개발현황(이상영 명지대 교수), 11월 19일(토)에는 ▲상업시설 개발트랜드(원창희 인터원대표) ▲도심형 생활주택(서용식 수목건축사장) ▲부동산개발사업(김승배 피데스개발) 등이 주제로 선정되었다.

대구 · 경북지역 '사랑의 밥차' 행사 개최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는 11월 12일 이재웅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서울 지역 재학생, 졸업생 봉사단원, 그리고 대구 · 경북지역 사랑의 봉사단원들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달성공원에서는 인근지역 불우이웃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 밥차' 행사를 열었다.

제1기 SCU 학생봉사단원 모집 및 네이밍 공모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는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대학의 분위기 조성과 체계적인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지성, 생각하는 리더' 로 재학생을 육성하기 위해 제1기 학생봉사단원을 모집하며, 이와 어울리는 네이밍 공모전을 함께 실시했다. 창단식은 내년 1월 14일 가질 예정이며, 참여자에게는 봉사학점이 검토되고 있고, 동계해외봉사나 역사문화탐방 신청시 가산점도 주어진다.

희망TV SBS 모금생방송 참여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나눔과 봉사를 통해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상' 의 이념을 구현하고 대학차원의 사회적 공헌을 실천하고자 학생과 동문,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첫 결실로 11월 11일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진행된 희망TV SBS 모금생방송에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 약 200여명이 다양한 이벤트와 모금활동에 참여하였다. 이 모금방송은 전 세계의 빈곤국가에서 기아와 질병에 노출된 아동들을 후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희망의 운동화 보내기, 가방 만들기 등 이벤트와 함께 연예인들의 공연도 함께 진행된 바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사회봉사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토대로 대학 차원의 사회봉사단을 창단, 보다 체계적인 봉사활동의 개발과 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재학생을 위한 릴레이 심리검사 특강

서울사이버대학교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는 10월부터 12월까지 3회에 걸쳐 '재학생을 위한 릴레이 심리검사 특강' 을 실시하고 있다. 본 특강에서는 10월 〈그림검사(HTP)와 문장완성검사(SCT)를 통한 자기이해〉, 11월 〈TAT 검사와 집단해석〉, 12월 〈MMPI 검사와 집단해석〉 등 매월 주제별로 심리검사를 집단으로 실시하고 검사에 대한 설명과 집단 해석을 진행하게 된다. (문의 : 02-944-5800)

해외 부동산시장 탐방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에서는 해외 부동산 개발 성공사례 탐방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이해하고 부동산 전문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싱가포르로 해외부동산 시장 탐방을 다녀왔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 부동산 시장이라는 무대에서 선전하고 있는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우수한 건축물과 쇼핑몰 등 다양한 사례를 직접 가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SCU동정

●●● 김영민 교수, 녹색물류 관련 논문 게재

국제무역물류학과 김영민 교수는 9월 30일 발간된 국제상학 제26권 제3호(한국국제상학회)에 〈물류기업의 녹색물류활동이 녹색물류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였다.

●●● 김용희 교수, 『부동산정책론』출간

부동산학과 김용희 교수는 9월『부동산정책론』(북마을)을 출간하였다. 정책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나아가 부동산정책을 부문별로 나누어 살펴본후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 김현아 교수, 집단상담 관련 논문게재 및 저서 출간

상담심리학과 김현아 교수는 한국상담학회에서 10월 발간한, 상담학연구지 제 12권 제 5호에 〈구치소 재소자의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논문을 게재하였으며,『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심리사회적 상담매뉴얼』(국제이주기구)을 9월 발간하였다.

●●● 김현진 교수, 교육심리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김현진 교수는 9월 30일 발간된 교육심리연구 제25권 제3호(한국교육심리학회)에 〈한국 대학생들의 자기조절동기, 학업정서, 및 인지적 자기조절 학습전략 사용간의 경로 탐색 연구〉에 대한 논문을 게재하였다.

●●● 권금주 교수,『가족정책론』출간

복지시설학과 권금주 교수는 9월『가족정책론』(교문사)을 출간하였다. 가족정책이 무엇이며, 어떤 관점에서 가족정책을 보아야 하며, 구체적으로 가족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소개하고 분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 나승성 교수, 개정상법 관련 논문 게재

법무행정학과 나승성 교수는 9월 25일 발간된 한국기업법학회지에 제25권 제3호〈개정상법상의 무액면주식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논문을 게재하였다.

●●● 박형원 교수,『아동복지론』출간

사회복지학과 박형원 교수는 9월『아동복지론』(교문사)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 · 지역사회 · 사회 · 국가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아동복지와 그 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다. 아동복지의 일반적인 내용을 비롯하여 현대사회에서 특별한 욕구와 문제를 가진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 서영수 교수, 투자심리 관련 논문 게재

금융보험학과 서영수 교수는 9월 30일 발간한 아시아유럽미래학회의 학회지에 제8권 제3호〈한국 투자자의 투자심리 학습을 위한 e-Learning 콘텐츠 개발〉에 대한 논문을 게재하였다.

●●● 심선경 교수, 사회복지 관련 논문게재

복지시설경영학과 심선경 교수는 6월 발간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지 제 13권 제 2호에 〈민간의 사회복지 재원 할당을 위한 아젠다 설정과정 사례 연구〉에 대한 논문을 게재하였다.

●●● 이성태 교수, 게임관련 디자인 출품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성태 교수는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의 주최로 열리는 2011 International Design Symposium, Forum & Invitational에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The animal' s survival game〉을 출품하였다.

●●● 이우경 교수, 부부심리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이우경교수는 9월 발간된 신경정신의학회지에 제50권 제5호〈기혼 부부들의 애착 양식, 감정표현불능증, 결혼만족도와 우울 증상간의 관련성〉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였다.

●●● 이자영 교수, 일본상담자척도 관련 논문 게재

군경상담학과 이자영 교수는 9월 발간된 The Japanese Psychological Association 제53권 제3호(SSCI)에 공동저자로 Cross Cultural validation of factor structure in the Japanese Counselor Burnout Inventory에 대한 논문을 게재하였다.

●●● 이진경 교수,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등재

부동산학과 이진경 교수가 미국의 '마르퀴즈후즈후(Marquis Who' s Who)' 사에서 발행하는 세계적 인명사전인 '후즈후 인 더 월드(Who' s Who in the World)' 2012년판에 등재된다. 최근 부담가능주택정책에 대한 연구결과를 국제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바 있다.

●●● 이향아 교수, 디자인 e-learning 관련 논문 게재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향아 교수는 한국과학예술포럼 ISCED 과학문화전시디자인연구소 학회지에 제24권 제3호〈디자인 실습과목의 e-learning에서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란 논문을 게재하였다.

SCU동정

●●● 최은실 교수, 아동심리관련 논문게재 및 포스터 발표

상담심리학과 최은실 교수는 9월 15일 한국발달심리학회지 제24권 제3호에 〈초등학생의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 타당화 연구〉에 대한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11월 5일 한국발달심리학회 심포지엄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성공적 적응을 위한 심리 치료적 개입〉이라는 제목의 포스터 논문을 발표하였다.

●●● 허재헌 교수, 보건 관련 논문게재 및 학회 발표

보건행정학과 허재헌 교수는 9월 발행된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7권 제3호에 〈보험의약품 가격규제와 기업행동: 생산활동을 중심으로〉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10월 18일~10월 22일 APACPH 주관으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논문을 발표하였고, 11월 14일~11월 18일 ICUM 주관으로 터키 안탈리아에서 논문을 발표하였다.

2012학년도 상반기 신 · 편입생 모집

■ 모집인원

학부	학과	정원내 전형			정원외 전형																				
		일반			산업체 위탁생			군 위탁생			중앙부처공무원 위탁생			학사	장애인			교육기회균등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신입	2편입	3편입	신입	2편입	3편입	신입	2편입	3편입	신입	2편입	3편입	3편입	신입	2편입	3편입	신입	2편입	3편입	신입	2편입	3편입	신입	2편입	3편입
인간복지	사회복지 노인복지 복지시설경영	360	44	417	72	2	83	108	3	111	18	0	18	144	10	0	11	10	2	11	7	0	7	72	15	75
심리상담	상담심리 가족상담 군경상담	460	43	657	92	11	129	138	2	191	23	0	31	216	13	0	19	13	2	18	9	0	12	92	0	124
사회과학	부동산 법무행정 보건행정	300	36	264	60	4	44	90	4	61	15	0	10	100	9	0	6	9	0	6	6	0	4	60	2	40
경상	경영 국제무역물류 금융보험	300	39	240	60	5	43	90	2	54	15	0	9	96	9	0	5	9	1	5	6	0	3	60	0	36
IT디자인	컴퓨터정보통신 멀티미디어디자인	160	22	143	32	1	24	48	7	36	8	0	5	54	4	0	4	4	0	3	3	0	2	32	0	22
문화예술	문화예술경영	70		80	14		16	21	0	24	3	0	4	30	2	0	2	2	0	2	1	0	2	14	0	16
합계		1,650	184	1,801	330	23	339	495	18	477	82	0	77	640	47	0	47	47	5	45	32	0	30	330	17	313
		3,635			692			990			159			640	94			97			62			660		

■ 공통 학력자격

전형유형	학력 자격
1학년 신입학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고교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2학년 편입학	• 전문대학 졸업자 • 4년제대학교 졸업자 • 4년제대학교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35학점 이상인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외국의 4년제대학교 1년 이상 수료자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4이상 취득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외국의 2,3년제 전문대학(커뮤니티 칼리지) 졸업자로서 준학사학위(Association degree) 소지자
3학년 편입학	• 전문대학 졸업자 • 4년제대학교 졸업자 • 4년제대학교에서 2학년(4개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7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70학점 이상인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외국의 4년제대학교 2년 이상 수료자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2이상 취득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외국의 2,3년제 전문대학(커뮤니티 칼리지) 졸업자로서 준학사학위(Association degree) 소지자
시간제	•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상의 학력 소지자 • 기타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교과부 종합평가 최우수 사이버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신 · 편입생 모집

2011년 12월 1일(목) – 1월 31일(화)

입학문의 02-944-5000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복지시설경영학과
상담심리학과, 가족상담학과, 군경상담학과
부동산학과, 법무행정학과, 보건행정학과
경영학과, 국제무역물류학과, 금융보험학과
컴퓨터정보통신학과,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신설)

최고 교수진
최첨단 16,000㎡ 교육시설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ISSN 2005-2049